



FOREWORD 들어가며...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뚝배기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차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구멍이 난 뚝배기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수 공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쏟아붓는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멍을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뚝배기에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게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멍을 메워도 새로운 구멍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뚝배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절차는 '복습'입니다. 흔히 복습에 대해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본다고 해서 '복습'을 진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습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미 까먹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행위나 진배없습니다. 복습은 반드시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습 일정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 복습의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복습은 학습 당일에 진행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많은 내용을 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복습의 효율이 극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차 복습은 학습 다음 날에 진행합니다. 전날에 복습을 진행했을 테니 많은 내용이 기억날 겁니다. 몇몇 내용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배운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3차 복습은 학습 3일 후에 진행합니다. 3번째 복습이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3회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개념은 별도의 노트 정리를 권장합니다.

4차 복습은 학습 일주일 후에 진행합니다. 이때부터는 추가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차 복습은 학습 2주일 후에 진행합니다. 네 번에 걸쳐 복습한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에 자리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까먹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정리합니다.

일련의 복습 과정은 따로 《복습 노트(or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습 노트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르는 게 생겼다고 바로 질문하는 태도는 좋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과정이 없으면 사고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적이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고민했음에도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문이나 작품의 특정 부분을 질문하셔도 좋고, 특정 문항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망망대해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02 질문 시 유의 사항

- 질문 시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세요. 예의 없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생기면 쉬는 시간 or 수업 종료 후에 질문 주세요.
- 이후 생기는 질문은 이형직 T 연락처로 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 모르겠다' 식의 질문에는 아주 포괄적인 대답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03 언어와 매체 영역을 푸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하나요?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속도가 충분히 나오려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고 이를 인출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합니다. 언어와 매체에 풀이에 20분을 투자하는 학생도 있으나, 10분 내로 풀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후자에 가까워지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04 언어와 매체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복습 절차를 충실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언어와 매체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또, 복습은 항상 누군가에게 배운 내용을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설명 대상을 두고 말로 설명하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저는 필통을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며 공부했었습니다.). 설명은 수업에서 들은 내용 그대로, 개념서에 있는 설명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거나 개념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하며 복습을 진행하다보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과 몽똥그려 넘어간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인출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목차	1회차 복습	2회차 복습	3회차 복습	4회차 복습	5회차 복습
음운의 변동(예시)	1월 1일(월)	1월 2일(화)	1월 4일(목)	1월 8일(월)	1월 15일(월)

집 필 이형직
연락처 010-6494-1022
인스타 rainbowmilkcow



MEMO

C O N T E N T S

H.core 언어와 매체(문장) 국어하기좋은날

FOREWORD 들어가며 4

Theme I 문장 성분

문장 성분 8

주성분 10

서술어의 자릿수 16

부속 성분 18

독립 성분 21

CORE 문장 성분 키워드 23

DRILL 1 문장 성분 24

Theme II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 34

이어진문장 35

안은문장 40

CORE 문장의 짜임 키워드 48

DRILL 2 문장의 짜임 50

Theme III 문법 요소 I

종결 표현 58

높임 표현 63

CORE 종결, 높임 표현 키워드 71

시간 표현 74

동작상 81

CORE 시간 표현 키워드 84

DRILL 3 종결, 시간, 높임 표현 86

Theme IV 문법 요소 II

피동 표현 94

사동 표현 98

CORE 피동, 사동 표현 키워드 103

부정 표현 104

인용 표현 105

적절한 문장 쓰기 106

CORE 부정, 인용, 적절한 문장 쓰기 키워드 105

DRILL 4 피동, 사동, 부정, 인용, 적절한 문장 쓰기 114

Theme

I

문장 성분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얘기해줄게.

① ‘동완 먹는다.’

② ‘동완이가 개미를 먹는다.’

①과 ② 가운데 하나는 문장이고, 하나는 문장이 아니야. 어떤 게 문장일까? ……

답은 ②이야. ②는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①의 경우 동완이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지, 동완이를 먹는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지? 내용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문장은 ②처럼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야 해. 그럼, 문장이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문장의 성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문장 성분을 품사의 개념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고 **문장 성분은 의미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야. 또, **품사에는 ‘OO사’(명사, 동사, 형용사……)**라는 이름이 붙는데, **문장 성분에는 ‘OO어’(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차이도 있어.

인간 ‘철수’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따져볼까? ‘철수’는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니 품사는 ‘명사’에 해당해. 이렇듯 품사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 결정되니 단어를 단독으로 놓고도 품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그렇다면 ‘철수’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 주어 등의 답을 떠올렸다면 오답이야. 적절한 답은 ‘모른다’야.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데, ‘철수’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제시되지 않았으니 ‘철수’가 어떤 문장 성분인지는 모른다고 답해야 해.

실제로 명사인 ‘철수’는 문장 안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가령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 문장에서 철수는 ‘주어’가 되지만,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때의 ‘철수’는 목적어가 돼.

품사
단어의 성질에 의해 결정
XX사 (명사, 동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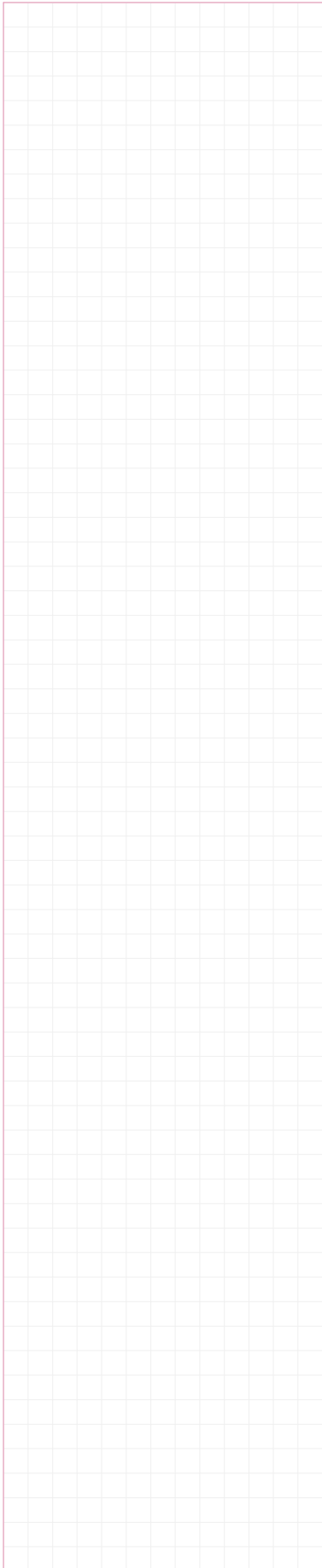
VS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의 기능에 의해 결정
XX어 (주어, 서술어 ……)

철수	
품사	명사!
문장 성분	문장이 없어 알 수 없음.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모르니!)

문장 성분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 문장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이 있고, 문장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이 있어.

문장 성분	
주성분	문장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함.
부속 성분	문장 성립 여부와는 관계 X,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
독립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 X



문장 성분 _ 주성분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얘기해줄게.

문장 성분 첫 번째, **문장의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이야. 주성분이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성립을 위한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 주 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줄게.

문장 성분		
주성분	문장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함.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	문장 성립 여부와는 관계 X,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	
독립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 X	

주성분 _ 서술어

문장이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성분이 있어야 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서술어'야. 이름 자체도 설명하는 말이라는 뜻이야! 정확한 정의는 **'주어의 동작, 상태 or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야. **서술어가 있어야만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해.** 또, 주어의 동작, 상태 or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니 **주어와는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면 돼. 서술어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서술어는 주성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문장의 중심이 되는 성분이야.

① 비가 내린다. / ② 동완이가 추하다.

①과 ② 모두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 ① 문장은 비가 '내린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이때 비의 동작(or 작용)을 설명하는 말인 '내린다'가 서술어야. ② 문장은 동완이가 '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동완이의 성질을 설명하는 말인 '추하다'가 서술어야. 이처럼 동작(or 작용), 상태(or 성질)을 설명, 즉 서술하는 말이 서술어야. 보통 동작(or 작용)을 설명할 때는 서술어에 **동사**가 쓰이고, 상태(or 성질)을 설명할 때는 **형용사나 체언 + 서술격 조사(이다)**가 사용돼.

서술어		
✓ 주어의 동작(or 작용), 상태(or 성질)을 설명하는 말 ✓ 주어와는 세트 메뉴 / 문장의 중심! / '어찌하다 or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		
유형	실현 양상	용례
동작 or 작용 설명	동사	동완이가 늙는다.
상태 or 성질 설명	형용사 or 체언 + 서술격 조사(이다)	동완이가 추하다. 동완이가 무당이다.

주성분 _ 주어

방금 알아봤듯이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or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야. 서술어만으로는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지 않으니 주어가 같이 쓰여야겠지?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상태 or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지. 가령 '죽는다'가 서술어로 쓰였다면 달리는 동작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주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더 쉽게 설명하면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주어야.

죽는다 (서술어) ⇒ 누가?? ⇒ 철수개 (주어)
추하다 (서술어) ⇒ 누가?? ⇒ 동완이가 (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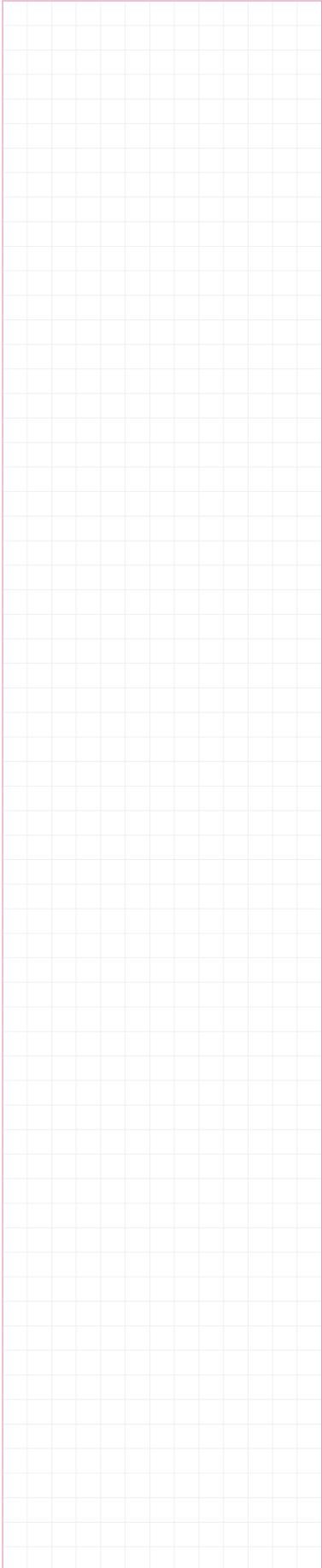
주어는 서술어와 더불어서 모든 문장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뼈대로 해서 다른 성분들이 덧붙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해. 주어는 보통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게서'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지만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또, **쉽게 유추가 가능할 경우 아예 주어 자체가 생략될 수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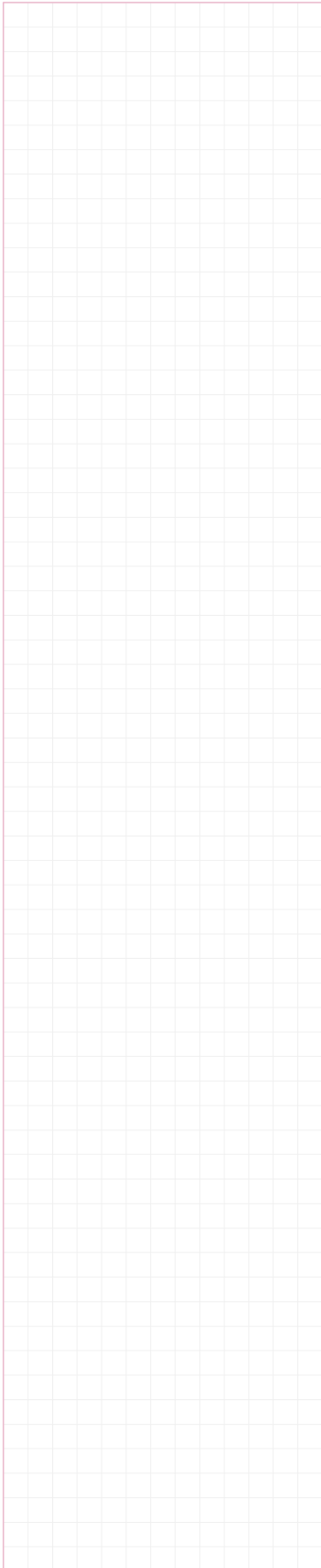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도약 Point

Q. 선생님 '은/는'은 주격 조사가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주격 조사의 종류를 물어보면 '은/는', '이/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실제로 '은/는'은 주어와 많이 어울리는 조사이기도 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은/는'은 주격 조사가 아니야.** 예시를 들어 보여 줄게. '형직이가 빵은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어. '빵' 뒤에 조사 '은'이 붙었던 말이야? 만약 '은/는'이 주격 조사라면 '빵'은 주어가 되어야겠지? 하지만 이 문장에서 빵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빵이 동작, 상태 or 성질의 주체인 건 아니잖아? 오히려 '빵'은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는'은 주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은/는'의 역할은 무엇일까? **'은/는'은 대조, 강조 등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야. 그래서 '형직이가 빵을 먹는다'는 문장은 '형직이가 빵을 먹는다'는 의미를 갖지만, '형직이가 빵은 먹는다'는 '형직이가 다른 건 안 먹지만 빵은 먹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야.





도약 Point

Q. 선생님 '에서'가 왜 주격 조사인가요?

'에서'는 보통 부사격 조사로 활용되지만, **문장의 주어가 집단 혹은 단체일 때**는 '에서'가 주격 조사로 사용될 수 있어. 예를 들어 '학생회에서 행사를 주최하였다'에서 행사를 주최한 주체는 '학생회'라는 단체잖아? 이때 학생회 뒤에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 상태 or 성질(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 ✓ 서술어와는 세트 메뉴 / '누가'에 해당하는 말 	
유형	용례
1) 체언	동원이 못생겼다.
2) 체언 + 주격 조사(이/가/께서/에서)	국이 짜다 / 동원이가 추하다.
3) 체언 + 보조사	얼굴도 못생겼다.
4) 생략	(네가) 밥 먹었니?
[구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상 주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격 조사를 붙였을 때 말이 되어야 함. 	

주성분 _ 목적어

위에서 본 서술어와 주어는 모든 문장이 갖추고 있어야 할 근간 성분들이야.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문장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어. 예시를 들어서 보여 줄게.

③ 동원이가 읽었다.

③은 동작을 설명하는 서술어 '읽었다'와 동작의 주체인 주어 '동원이'를 모두 갖추고 있어. 하지만 완결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동원이가 당최 무엇을 읽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③을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원이가 '무엇을' 읽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해. 즉, 동원이가 읽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③ 동완이가 불법 선전문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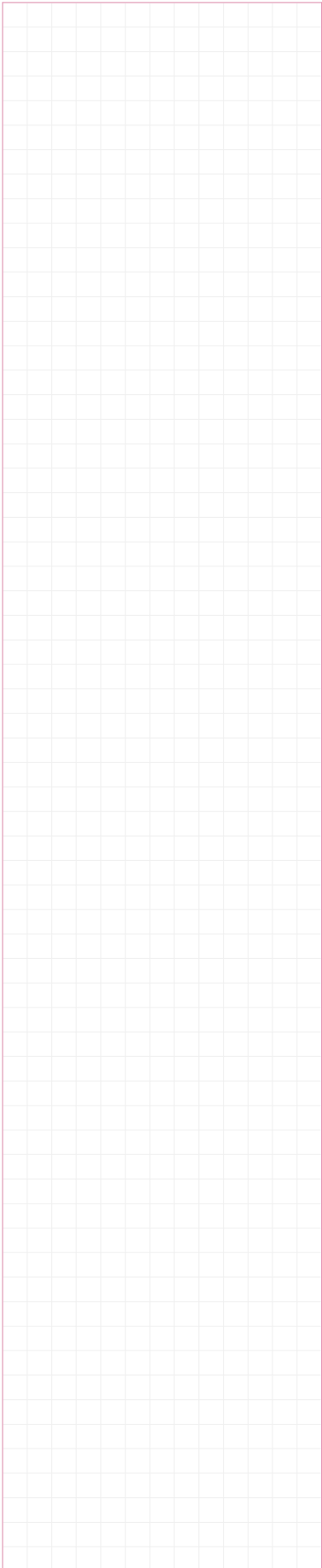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해 주면 완결된 내용을 갖게 되어 문장의 자격을 갖추게 돼. 이 때, '불법 선전문'처럼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 정의 자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대상어'라고 부르기도 해(영어 명칭은 object!). 하지만 문법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목적어'라고 번역이 되어 버렸고, 학교 문법에서도 '목적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기억해줘야 해. 상당히 똑배기가 마려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

서술어나 주어와는 달리 목적어는 모든 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성분은 아니야. 가령 '동완이는 비열하다'처럼 상태 or 성질을 설명하는 문장도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 애초에 **정의 자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니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와야 해. 형용사나 체언 +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가 쓰일 수 없다~** 이 말이야. 또,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가령 '동완이가 죽는다'라는 문장은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왔지만, 딱히 동작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아서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어.

그럼에도 목적어가 주성분인 이유는,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할 때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지게 되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목적어도 문장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에 들어가는 거야.

목적어는 보통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결합**해서 실현돼. '형직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밥'이 되는 거지. 그런데 가끔 목적어가 '은/는'과 같은 보조사와 결합하거나 아예 목적어 뒤에 조사가 생략되는 때도 있어. '형직이가 밥은 먹었다.'와 '형직이가 밥 먹었다'에서처럼 말이야. 만약 어떤 성분이 목적어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성분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봐. 목적격 조사가 붙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면 목적어야. 주어와 마찬가지로 쉽게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해.

목적어	
✓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 서술어 자리에 대상을 요구하는 동사 가 와야 함 (모든 문장에서 요구되는 것 아님)	
유형	용례
1) 체언	동완이가 이형직 찬양한다.
2) 체언 + 목적격 조사(을/를)	동완이가 책을 읽는다.
3) 체언 + 보조사	동완이가 이형직도 찬양한다.
4) 생략	밥 먹었니? / 네, (밥을) 먹었어요.
[구분법]	
✓ 의미상 동작의 대상인지 확인! ✓ 목적격 조사를 붙였을 때 말이 되어야 함.	



주성분 _ 보어

보어는 말 그대로 '불완전한 곳을 보충해 주는 말'이야. 이 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④ 동완이는 되었다.

한국인이려면 ④를 보고 아마구치가 빙빙 돌 수밖에 없어. 도대체 동완이가 무엇이 되었다는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야. ④는 내용이 완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문장이라고 할 수 없어. ④를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완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말해줘야 해. 가령

④ 동완이는 심마니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동완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말해 주면, 비로소 4.를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말**이 바로 '보어'야. 목적어와 보어를 헷갈릴 수 있는데,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붙기 때문에, 둘은 의미상으로 따져봐도 완전히 달라.

보어는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에서 요구되는 성분은 아니야**. 하지만 **보어가 요구되는 문장에서 보어가 빠진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어도 주성분으로 분류**되는 거야. '부족한 곳을 보충해 주는 말'이라는 정의를 보면 보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다행히도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보어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아예 보어의 유형을 암기해 주면 편해. 이야기해 줄 테니 다섯 번만 복창하고 가자. 앞으로 '보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래 문장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라야 해.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말이다.

보어	
✓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의 뜻이 완전하지 않을 때,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해주는 말 ✓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말 ✓ 서술어 자리에 '되다'와 '아니다'가 와야만 쓰일 수 있다.	
유형	용례
1) 체언	동완이는 한국인 아니다.
2) 체언 + 보격 조사(이/가)	동완이는 심마니가 되었다.
3) 체언 + 보조사	동완이는 사람조차 아니다.
[구분법] 보격 조사를 붙였을 때 말이 되어야 함.	

도약 Point

Q. 선생님 '이/가'는 주격 조사 아닌가요? 어떻게 보어에 '이/가'가 붙는 거죠?

'이/가'는 보통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게 맞아. 하지만 보어에도 '이/가'가 붙는데 이때 붙는 '이/가'는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보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보격 조사야. 주격 조사와 형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주어는 '주체가 되는 말'이고 보어는 '부족한 곳을 보충해주는 말'이야. 가령 문장 '내 동생이 카멜레온이 되었다.'에서 '내 동생'과 '카멜레온'에 모두 '이/가'가 붙었지만 '내 동생'은 주어고, '카멜레온'은 보어야. 주어와 보어는 의미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꼭 확실히 알아 두자!

도약 Point

보조사 '이/가'

'이/가'는 주로 주격 조사로 쓰이고, 때로 보격 조사로 쓰이기도 해. 그런데 '이/가'가 보조사로서의 쓰임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니? 앞말을 지정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이/가'는 보조사라고 봐야 해. 가령,

나는 **김밥이** 먹고 싶다.

라고 할 때, 김밥 뒤에 붙은 '이'는 주격 조사도, 보격 조사도 아니야. 앞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붙은 보조사에 해당하지. 이처럼 '이/가'가 보조사의 쓰임을 가질 때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어.

도약 Point

Q. 선생님! '밥 먹었니?' '밥 먹어라.'는 주어가 없는 문장인 거죠?

한국어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한 언어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맥락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밥 먹었니?'와 '밥 먹어라.'의 주어는 당연히 말을 듣는 상대(너)일 거야. 주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생략한 거지. 이 경우, '너가 밥 먹었니?', '너가 밥 먹어라.'처럼 주어를 밝혀서 말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어를 생략했다고 해서 주어가 없는 건 아니야. 단지 밝혀 적지 않았을 뿐인 거야.**

추가로 **접문장의 형성과정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면 하나가 생략될 수 있어.** "철수가 밥을 먹고 나서, 철수가 집에 갔다."가 아니라 "철수가 밥을 먹고 나서, 집에 갔다."처럼 쓰는 식이야. 이때, 마치 있어야 할 문장 성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되었을 뿐이란 걸 명심하자!**

서술어의 자릿수 _ 필수 성분

※ 부속 성분 단원에 있는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을 읽고 오면 이해가 쉬울 거야

주성분은 모두 문장 성립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지만, 문장에 따라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주어와 서술어는 모든 문장에 필요해!). 어떤 문장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모두 요구하지만, 어떤 문장은 목적어만 요구하고, 또 어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구성되기도 해. 이는 **서술어마다 필요로 하는 성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야.

누가? 착하다	누가? 무엇을? 먹었다
주어만 있으면 돼 (주어만 요구하는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해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해!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서술어
누가? 착하다
주어만 있으면 돼!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해. **자신 외에 한 자리를 더 요구하는 서술어**라고 생각하면 편해. 가령 ‘죽다, 내리다, 아름답다’는 주어 외에 다른 성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야.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0자리 서술어는 존재하지 않아.** 서술어의 자릿수는 **최소 한 자리 이상**인 거지.

한 자리 서술어
누가? 착하다
주어만 있으면 돼! (주어의 자리를 요구하는 서술어)

서술어가 주어 외에 다른 성분 하나를 더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해. **주어와 다른 성분까지 총 두 자리를 요구하는 서술어**인 셈이야. 주어와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은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셋이 있으니, 두 자리 서술어 또한 세 종류가 있어. 서술어 ‘먹다, 되다, 가다’는 각각 **주어 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해.

두 자리 서술어		
<u>누가? 무엇을?</u> 먹었다	<u>누가? 무엇이?</u> 되었다	<u>누가? 어디로? 가다</u>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해!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주어와 보어가 있어야 해!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해!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 필수적 부사어는 '어디로, 누구와, 누구에게'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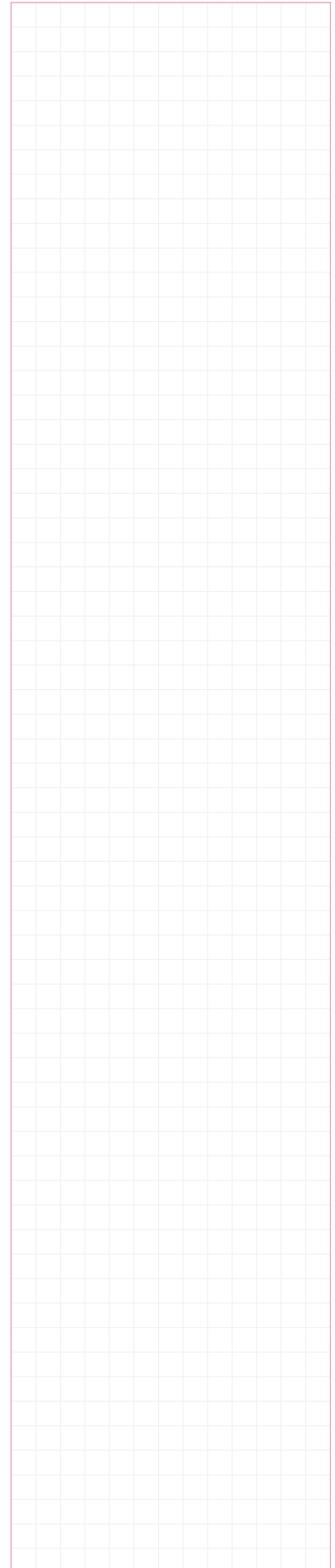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서술어가 주어 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 이런 서술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해.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까지 총 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니 세 자리 서술어라는 이름이 붙는 거야. '보내다, 주다'가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의 예시야.

세 자리 서술어
<u>누가? 무엇을? 누구에게?</u> 보냈다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해!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도약 Point

Q. 선생님! 보어-목적어, 보어-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는 없나요?

A. 아주 좋은 질문이야. 답을 먼저 주면, 그런 세 자리 서술어는 없어. 학교 문법상에서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되다'와 '아니다'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서술어들이 보어를 요구할 때는 목적어와 보어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 보어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이지. 따라서 보어와 목적어,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함께 요구되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고, 세 자리 서술어 또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거야.



문장 성분 _ 부속 성분

문장 성분 두 번째, 부속 성분이야. 부속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들을 꾸며 주는 말인데, 주성분과는 달리 부속 성분은 없어도 문장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해. 꾸며 주는 말이 굳이 없어도 문장의 내용은 완성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이 말이야! 가령

동완이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위 문장에서 주성분인 '동완이(주어)', '여자(목적어)', '좋아한다(서술어)'를 생략하면 문장 성립이 무너지게 돼. 반면 '임자가 있는'이라는 수식을 빼면 의미는 다소 변하겠지만, 문장 성립이 어그러지지는 않아. 이처럼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면서, 문장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딸려 붙은 성분이다~ 이 말이야.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어. 주성분에 비해선 수가 적은 편이지?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문장 성분		
주성분	문장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함.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부속 성분	문장 성립 여부와는 관계 X,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 X	

부속 성분 _ 관형어

관형어는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야. 관형사가 뭐냐고? 그러면 **혼나**. 관형사는 '모자 모양(관형) 말'이라는 뜻이야. 관형사의 관이 '왕관', '면류관' 할 때의 관이거든. 관형사는 즉, 모자를 씌워주는 말, 수식하는 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관형사가 수식해주는 대상은 '체언'이야. 그러니, **관형사는 '체언에 모자를 씌워주는(수식해주는) 말'**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쁜 꽃이 있다.

관형사가 아니더라도 문장 안에서 관형사의 역할인 체언 수식을 담당하고 있다면 관형어라고 할 수 있어. 위 문장에서 '예쁜'은 뒤에 오는 체언 '꽃'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관형어에 해당해. 관형어가 문장에서 빠지면 의미가 조금 변하긴 하겠지만, 문장이 무너지지는 않아. (그러니 부속 성분!)

관형어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야. 1) **관형사**가 관형어로 기능하기도 하고('새 신발'의 '새!'), 2)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해(시골 사람의 '시골'). 또, 3)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를 결합**해서 관형어를 만들 수도 있어('불주먹의 형직이'에서 '불주먹의'). 4) 마지막으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 수도 있는데,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예쁜'을 만들어 주는 식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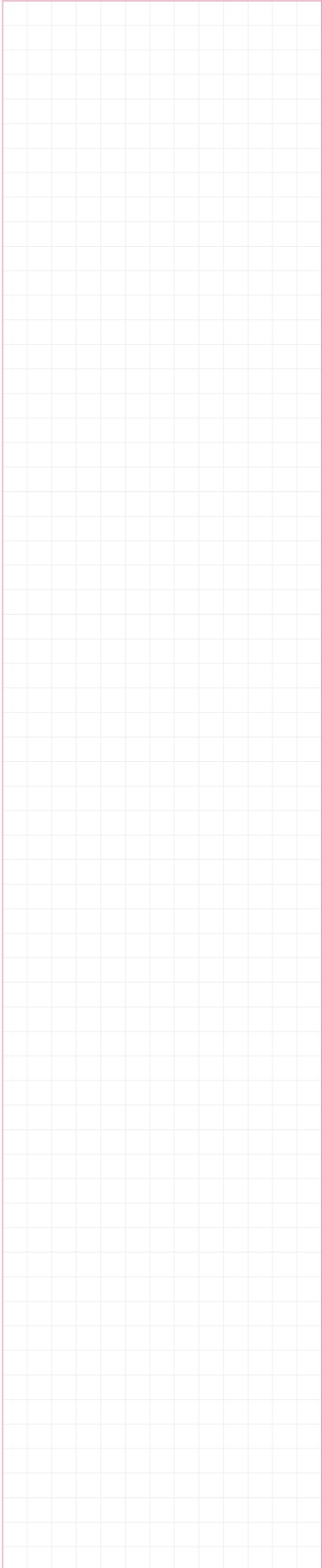
	관형어
	체언_피수식언
✓ 새 신발	
✓ 새 = 관형어	신발 = 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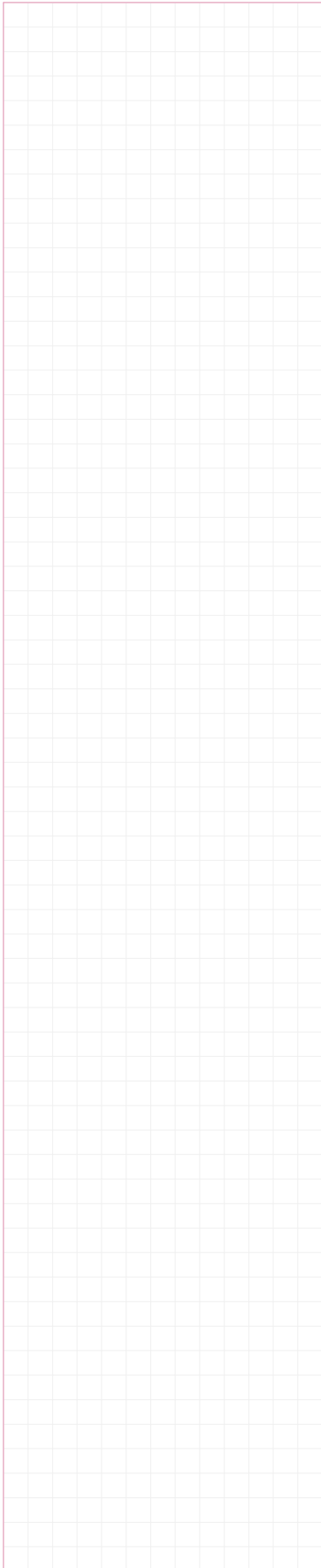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관형어	
✓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유형	응례
1)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나는 어제 새 모자를 샀다.
2) 체언이 관형어로	시골 사람이 다 됐네!
3)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불주먹의 형직이
4)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이것은 내가 어제 먹은 빵이다. 나는 밥을 먹는 중이다. 나는 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예뻐던 얼굴이 흉악하게 변했다.

부속 성분 _ 부사어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었다면, **부사어**는 **체언 외의 다른 문장 성분들을 꾸며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관형어나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해. 심지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때도 있어. 어차피 **부속 성분은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이니, **부속 성분인데 체언을 수식하지 않는다면 부사어라고 판단**해도 돼.

비둘기가 높이 난다.
이 사과를 정말 맛있다.





위 문장들에 쓰인 '높이', '정말'은 없어도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부속 성분이지만,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아니니, 부사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부사어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1)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될 수 있고, 2)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게, (에)서, 로' 등이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기도 해. 3)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 '-도록' 등이 붙어 부사어가 되기도 해. 그럼, 예문을 통해 부사어의 예시를 확인해 보자.

부사어		
✓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		
유형	용례	
1)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	너는 아주 나쁜 녀석이다.	
2) 체언 + 부사격 조사	건물 한 채가 산만큼 거대했다.	
3)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	불주먹의 형직이	
기능	용례	
성분 부사어	1) 서술어 수식	동완이는 매우 비열하다. (서술어 수식)
	2) 관형어 수식	정말 하얀 눈이다. (관형어 수식)
	3) 부사어 수식	엄복동이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다. (부사어 수식)
문장 부사어	4) 문장 수식	모름지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문장 수식)

필수 성분 _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예문 하나를 살펴보자.

㉮ 동완이는 간다.

한국인은 5.를 보면 부아가 치밀게 되어 있어. 5.는 동완이가 간다고 말하는데, '어디에 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5.의 내용의 완결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동완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줘야 해. 즉, '어디에'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아래처럼 바꿔주면 ㉮를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동완이는 **흡뻐쇼에** 간다.

그런데 '에'는 부사격 조사이니 'OO에'는 부사어에 해당한단 말이야. 부사어는 분명 부속 성분인데, 이상하지. 요놈이 빠지면 문장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든. 이처럼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놈을 일반적인 부사어와 구분하여 '필수적 부사어'라고 불러.

형식s 알쓸신잡

필수적 부사어??

모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되고 이름이 붙어. 주어도, 목적어도, 서술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필수적 부사어'만 유일하게 문장 안에서 필요한지 여부로 분류되고 이름이 붙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는 문장 성분의 분류 기준에서 '필수적 부사어'만 벗어나 있는 셈이지. 그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필수적 부사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해.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어의 범주에 이들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야. 물론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학교 문법은 엄연히 필수적 부사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교육 과정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

문장 성분 _ 독립 성분

문장 성분 세 번째, **독립 성분**이야.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 하나밖에 없어. 말 그대로 **독립적인 문장 성분**이고,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아.**

깜짝이야 어떻게 지평 좌표계에 고정하셨죠?

에 싸패다.

위 문장들에 쓰인 '깜짝이야', '에'는 다른 문장 성분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아. 이런 성분들을 독립어라고 하는 거야. 독립어는 보통 심표를 통해 다른 문장 성분들과 분리하여 적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특정 말 뒤에 심표가 있다고 반드시 독립어인 건 아니니까 주의하도록 하자. 독립어는 1) **감탄사**나 2) **체언 + 호격 조사(아, 야, (이)여, (이)시여)** 3) **제시어나 표제어**의 형태로 실현돼.

독립어	
✓ 다른 문장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	
유형	용례
1) 감탄사	앗 , 따가워!
2) 체언 + 호격 조사(아, 야, 여, 이여, 이시여) ※ 호격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음.	형직아 , 저기 하늘을 보라. 하늘이시여 ,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철수 이리 와.
3) 제시어나 표제어	인생 ,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적용 훈련

※ ①~⑥의 문장 성분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 ① 내가 네 아빠다.
- ② 누가 고양이 소리를 내었어?
- ③ 도곡동 땅이 어떨다고요?
- ④ 정수는 소방관이 되었다.
- ⑤ 무지개 젓소가 신도림역에서 형직이를 잡아먹고 있다.
- ⑥ 예림이! 그 패 봐봐.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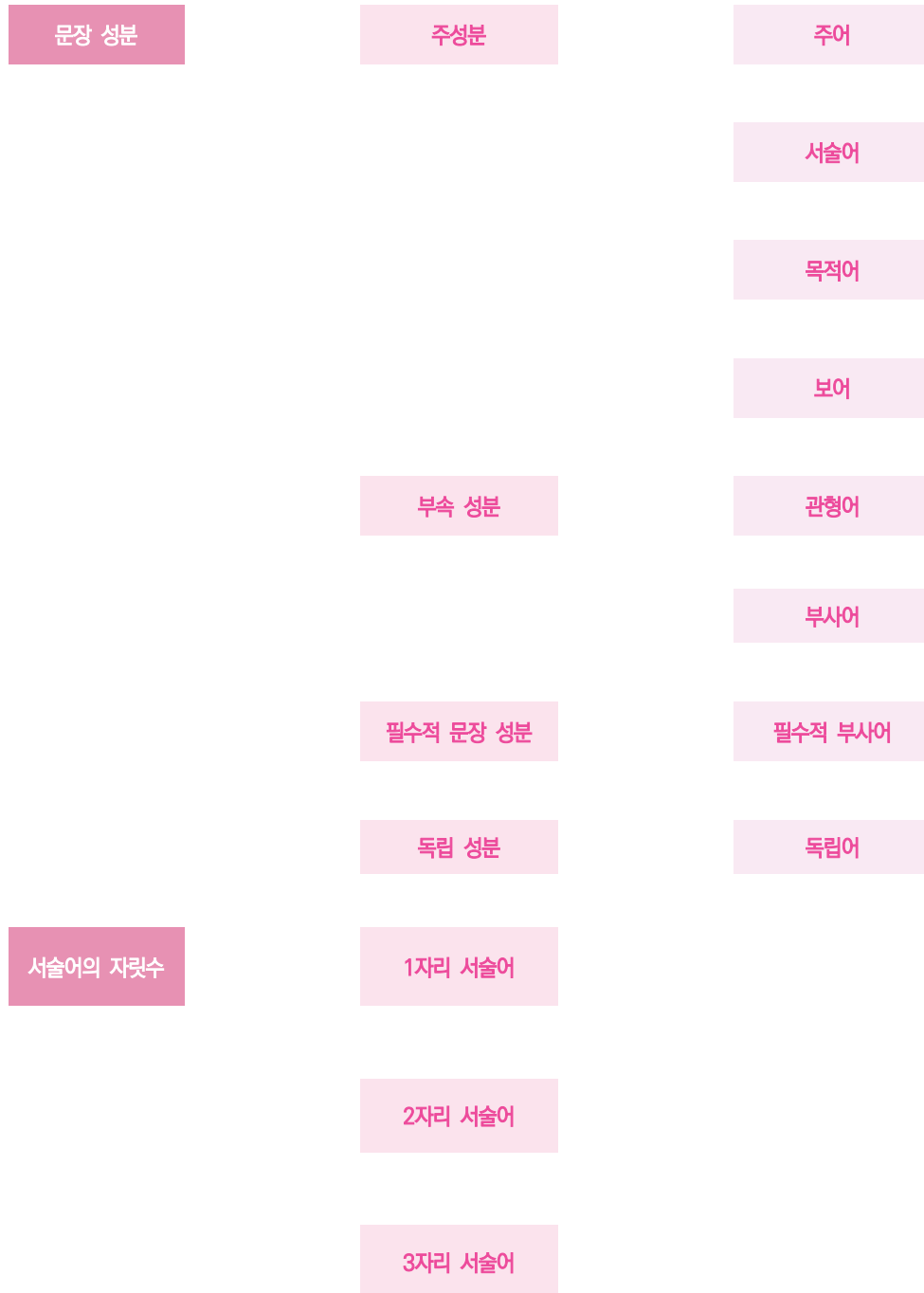
⑤

⑥

※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를 적으시오.

- ① 슈크림도어가 닫힙니다.
- ② 대치동 돼지 엄마는 고봉민 김밥에서 야채치즈김밥을 먹었다.
- ③ 귀신은 없다.
- ④ 합격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 ⑤ 철수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었다.

키워드로 정리 _ 문장 성분 CORE



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1 2014년 6월 학평 14번)

<보 기>

하나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가 있다.

◦ 철수는 어제 민규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문장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고1 2014년 3월 학평 15번)

<보기 1>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탐구해 보자.

윤이는 맑은 하늘을 좋아한다.

- ㉠ ㉡ ㉢ 서술어

[탐구 과정]

- 1) ㉠이 없을 경우: '좋아한다'의 주체(주어)가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2) ㉡이 없을 경우: '하늘'을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므로, 문장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이 없을 경우: '윤이가 좋아하는 대상(목적어)이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탐구 결과]

'좋아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보기 2>

- ㄱ.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ㄴ.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 ① ㄱ은 '희선이는'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② ㄴ은 '빨간'과 '장미꽃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③ ㄱ의 '먹었다'와 ㄴ의 '피었다'는 모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④ ㄱ의 '맛있는'과 ㄴ의 '활짝'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 ⑤ ㄱ의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ㄴ의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3. 다음과 같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고2 2016년 9월 학평 13번)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서술어라도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문장 성분을 생략해 봄으로써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탐구자료 [A]

- 공쥐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탐구활동

문장 성분을 생략해 보며,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지를 파악한다.

• 공쥐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 '공쥐가', '옷을', '예쁘게'를 각각 생략해 본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를 각각 생략해 본다.

탐구결과

서술어 '만들었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에 따라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세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적용자료 [B]

- 친구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 철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 ① [A]에서 '공쥐가'와 '어머니는'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므로 꼭 필요한 성분이겠군.
- ② [A]에서 '옷을'과 '아들을'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므로 생략할 수 없겠군.
- ③ [A]에서 '예쁘게'는 '의사로'와 달리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군.
- ④ [B]에서 '친구는'과 '손을'을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잡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겠군.
- ⑤ [B]에서 '많이'는 생략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이므로 '잡았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겠군.

4.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고2 2021년 3월 학평 14번)

<보 기>

선생님: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의어의 경우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한 자리 서술어, '그는 지리에 밝다.'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럼, 학습지에 제시된 다의어 '가다'와 '생각하다'의 의미와 예문을 보고, ㉠~㉣ 중에서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인 경우를 모두 골라 볼까요?

가다

1.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친구가 내일 서울로 간다. …… ㉠
2.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 바지에 구김이 너무 간다. …… ㉡
3.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 낡은 괘종시계가 잘 간다. …… ㉢

생각하다

1.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 학생이 진로를 생각한다. …… ㉣
2.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
 ¶ 우리가 투표를 의무로 생각한다. ……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2 2022학년도 11월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서술어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서술어의 자릿수와 서술어로 쓰인 단어가 가지는 선택 자질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서술어가 주어만을 필요로 하면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한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면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면 ‘세 자리 서술어’로 분류한다.

그런데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사 ‘멈추다’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동차가 멈추다.’에서와 같이 한 자리 서술어이고,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버지가 자동차를 멈추다.’에서와 같이 두 자리 서술어이다.

다음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은 경우에 따라 특정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특성을 갖는데 이를 ‘선택 자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언이 선택 자질에 의해 특정 단어를 선택하여 결합하는 현상을 ‘선택 제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떡다’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낸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언은 한정된다. 즉 주어로는 입과 배라는 신체 기관을 지닌 생물만을, 목적어로는 음식만을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밥을 떡다.’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지만 ‘바위가 밥을 떡다.’와 ‘아이가 바위를 떡다.’는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어겨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5.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고2 2022년 11월 학평 11번)

- ①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 ②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
- ③ 이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다.
- ④ 나는 밤새 보고서를 겨우 만들었다.
- 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소개했다.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2 2022년 11월 학평 12번)

<보 기>

[탐구 과제]

다음 [탐구 자료]에 나타난 서술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탐구 자료]

살다 「동사」

「1」 생명을 지니고 있다.

예 그 사람들은 백 살까지 ㉠ 살았다.

「2」 […]에/에서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

예 그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 산다.

「3」 […]을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예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 살았다.

「4」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잘 ㉣ 산다.

그 부부는 오순도순 잘 ㉤ 산다.

[탐구 결과]

[A]

- ① ㉠은 「1」의 의미를 고려할 때, 주어에 ‘생명을 지닌 존재’만을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 되겠군.
- ② ㉡와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개수는 동일하겠군.
- ③ ㉡와 ㉣은 각각 「2」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언은 한정되겠군.
- ④ ㉢은 「3」의 의미를 고려할 때,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선택 자질을 갖겠군.
- ⑤ ㉤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과 같겠군.

7.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3년 3월 학평 A형 13번)

<보 기>

- ㄱ. 새가 날아간다.
- ㄴ. 어디 갔니, 영화는?
- ㄷ.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 ㄹ.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 ㅁ.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 ① 'ㄱ'과 'ㄷ'을 보면,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
- ② 'ㄱ'과 'ㄹ'을 보면, 주격 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어.
- ③ 'ㄱ'과 'ㅁ'을 보면, 상황에 따라 주어라 생략될 수도 있어.
- ④ 'ㄴ'과 'ㄷ'을 보면, 주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있어.
- ⑤ 'ㄷ'과 'ㄹ'을 보면, 주어는 한 단어뿐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어.

8. <보기>에 있는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넣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20년 3월 학평 15번)

<보 기>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 체언 + 목적격 조사 '을/를'
- 체언 +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ㄱ
- 체언 단독 ㄴ
- 체언 + 보조사 + 목적격 조사 ㄷ

[자료]

그는 _____ 갔어.

- ① ㄱ의 예로 '산책'을 넣을 수 있다.
- ② ㄱ의 예로 '이사도'를 넣을 수 있다.
- ③ ㄴ의 예로 '꽃구경'을 넣을 수 있다.
- ④ ㄴ의 예로 '배낭여행'을 넣을 수 있다.
- ⑤ ㄷ의 예로 '한길만'을 넣을 수 있다.

9.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5년 6월 학평 14번)

<보 기>

- ㉠ 그녀는 파란 옷을 입었다.
- ㉡ 이 우산은 새 것이다.
- ㉢ 시골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 ㉣ 영화는 내가 읽은 책을 읽을 계획이다.

- ① ㉠을 보니 관형어는 체언의 의미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을 보니 관형어가 없으면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격 조사가 붙지 않은 체언은 관형어가 될 수 없군.
- ④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할 수 있군.
- ⑤ ㉣을 보니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군.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2 2023학년도 6월

‘품사’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 (가) 현 집이지만 나는 고향 집이 정겹다.
- (나)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가)의 ‘현’은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이때 ‘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현’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인다. 즉 ‘현 책, 현 구두’와 같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만 쓰인다. 또한 ‘고향’은 명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 앞의 체언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또한 ‘예쁜’은 형용사인데,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살던 집’, ‘구경하는 집’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10.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23년 6월 학평 11번)

- ①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 ②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군.
- ③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군.
- 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군.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탐구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고2 2023년 6월 학평 12번)

<보기>

- ㄱ. 새 가구는 어머니의 자랑거리이다.
- ㄴ. 모든 아이들이 달리는 사자를 구경했다.
- ㄷ. 그들은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 ㄹ. 우리 가족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 ㅁ. 대부분의 학생이 여름 바다를 간절하게 그리워했다.

문장	탐구 정리 내용		
	관형어 개수	관형어	품사
① ㄱ	1	어머니의	명사 + 조사
② ㄴ	2	모든	관형사
		달리는	동사
③ ㄷ	1	친한	관형사
④ ㄹ	1	가던	동사
⑤ ㅁ	2	여름	명사
		간절하게	형용사

12.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사어의 종류와 예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고2 2014년 3월 학평 A 13번)

<보기>

부사어에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가 있다. 성분 부사어는 용언, 체언,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준다.

- ①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 장미꽃이 정말 예쁘다.
- ②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 - 이상하게 오늘은 운이 좋다.
- ③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 그가 매우 높이 뛰어올랐다.
- ④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 내 차가 아주 새 차가 되었다.
- 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 단행히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B 13번)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지낸다.
- 할아버지가 노년에 편하게 지내신다.

↓

문장 성분 분석

- 주 어 :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 주 어 :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게】**

	예문	문형 정보
①	•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 【…으로】
②	•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가 있다.	→ 【-게】
③	•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 【…에】
④	•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딸려 있다.	→ 【…으로】
⑤	•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 【-게】

14.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2013학년도 6 월 평가원 11번)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 +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1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A 15번, B 12번)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16.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2026학년도 수능 37번)

<보 기>

[조건]

-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
-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

-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다.
-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으며 삼촌은 입맛을 다셨다.

1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2024학년도 수능 39번)

<학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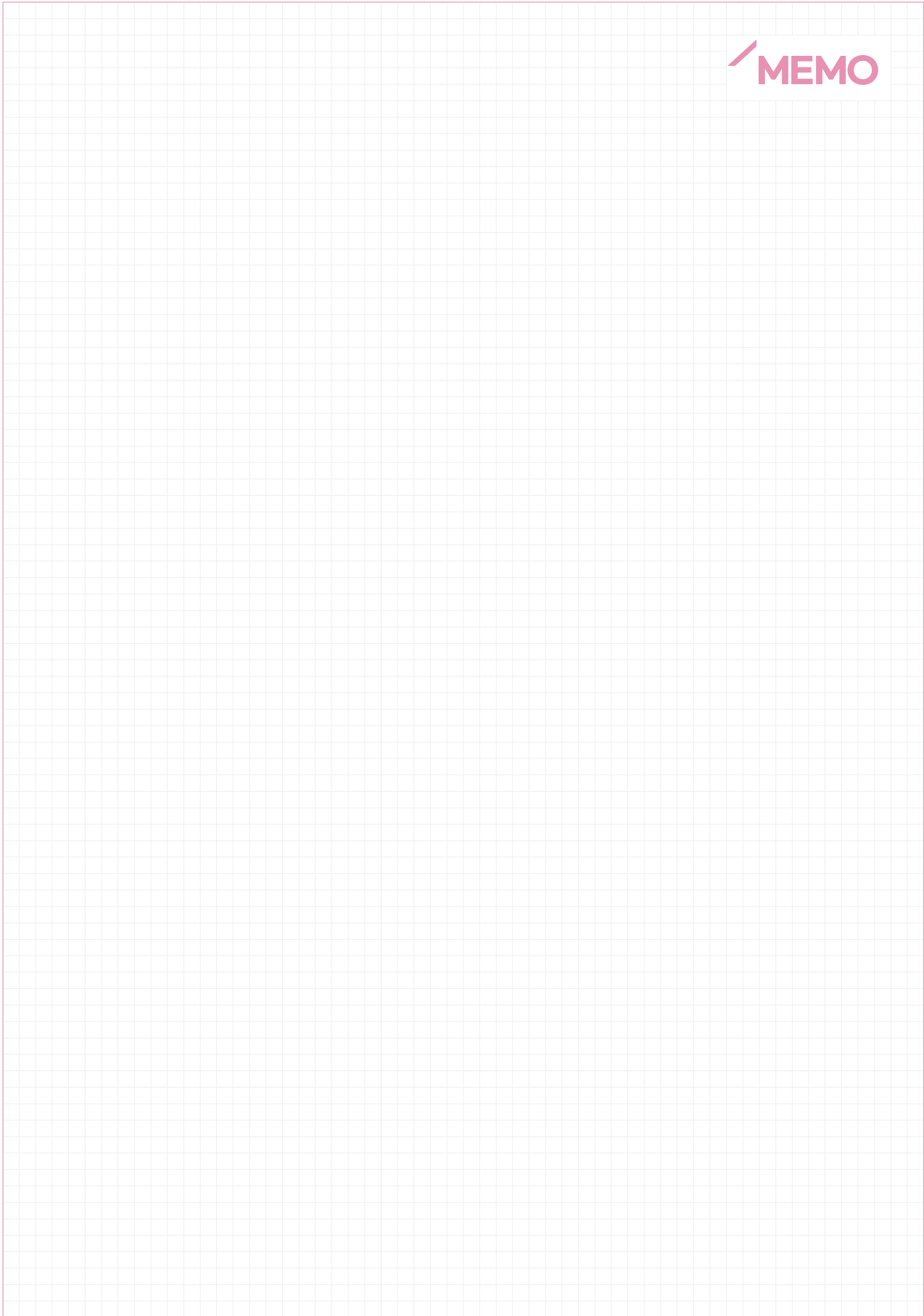
부사어는 부사, 체언 + 조사,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등이다. 일례로 ‘차가 간다.’의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잘’을 부사어로 쓰면 ‘차가 잘 간다.’가 된다.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 보자.

[조건]

- ㉠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체언 + 조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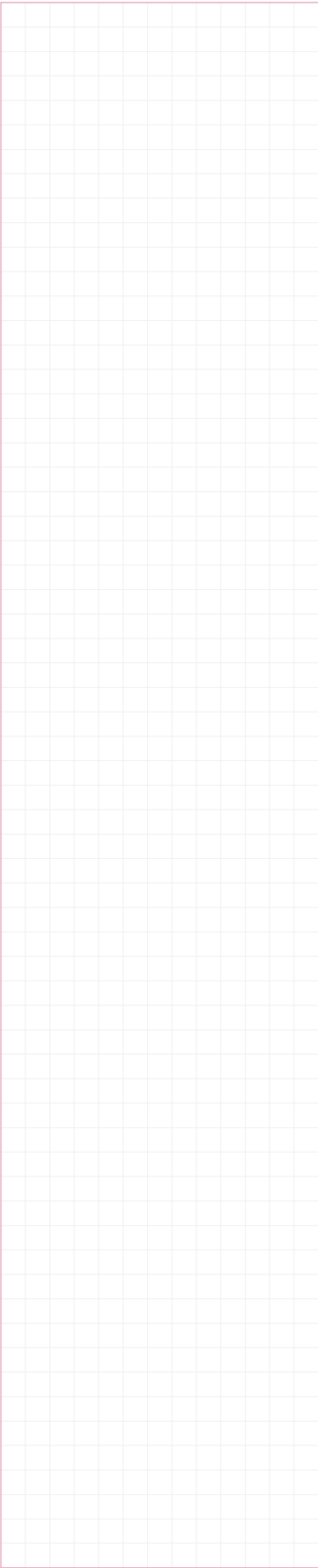
	조건	수정 전 ⇨ 수정 후
①	㉠, ㉡	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
		⇨ 방긋이 웃는 아기가 참 귀엽게 걷는다.
②	㉠, ㉢	화가가 붉은 선을 쪽 그었다.
		⇨ 화가가 조금 붉은 선을 세로로 쪽 그었다.
③	㉡, ㉣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 그를 무척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④	㉢, ㉣	만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 전혀 만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
⑤	㉢, ㉣	영미는 그 일을 처리했다.
		⇨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Theme

II

문장의 짜임



홀문장과 겹문장

자, 지금까지 문장의 정의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공부했어. 문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알겠지? 간단히 정리해 보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의미를 지니어야 해. 그러니 '동원이 밥' 이런 건 문장이 될 수 없어. 동원이 밥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동원이 밥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는 말이 붙어줘야 문장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때, 주체의 동작작용, 상태성질을 설명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고, 서술어가 설명하는 동작, 상태성질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는 거야.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해. 이게 의미가 완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야. 다음 예시들이 올바른 문장의 예시야.

- 치순이는 귀엽게 생겼다.
- 성재는 잘나간다.
- 태이는 숙제를 안 했다.

위 예시들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홀문장**이라고 해. 하나의 문장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장의 종류에 홀문장만 있는 건 아니야. 다음 예시를 한번 보자.

① 놀부는 밥을 먹었고, 흥부는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다.

위 문장(이하 ①)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놀부 - 먹다'/'흥부 - 맞았다'). 이걸 ①이 사실 하나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야. '놀부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과 '흥부가 뺨을 맞았다'라는 문장이 합쳐져 ①이 완성된 거지.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하고, **홀문장이 모여 겹문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문장의 확대'**라고 해. 겹문장은 결합 방식이나 문장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크게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뉘어.**

문장의 확대	
놀부는 밥을 먹었다. (홀문장)	+ 흥부는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다. (홀문장)
⇒ 놀부는 밥을 먹었고, 흥부는 형수님에게 뺨을 맞았다. (겹문장)	
✓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뉨!	

이어진문장

이어진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들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결합한 것**을 말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 주는 게 빠른 테니 예시를 확인해 보자!

문장 1: 비가 내린다.

문장 2: 바람이 분다.

자, 문장 1과 문장 2를 이어볼까? 두 문장을 가장 무난한 방식으로 잇는다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정도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어진 문장이야. 말 그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진 형태의 문장**이야. 이어진문장은 크게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나뉘어.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어진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들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결합한 겹문장✓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짐✓ 문장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구분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S-P (앞 문장)</div>(연결 어미)<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S-P (뒤 문장)</div></div>	
형식	설명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홀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홀문장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먼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말 그대로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거야.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면서도 대등한 문장’인데, 위에서 이야기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가 대표적인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야. 문장 ‘비가 내리다’와 ‘바람이 분다’가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대등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 가령 천 원을 가지고 푸켓몬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건, 천 원과 푸켓몬 빵이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대등한 가치



=



천 원

푸켓몬 빵



=



푸켓몬 빵

천 원

☞ **대등한 가치를 지녔다면, 서로 바꿀 수 있다!**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비가 내린다. (문장 1) + 바람이 분다 (문장 2)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문장 2) + 비가 내린다 (문장 1)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바꿀 수 있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 =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다)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나열(and), 대조(but), 선택(or)**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야.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는지를 보면 돼.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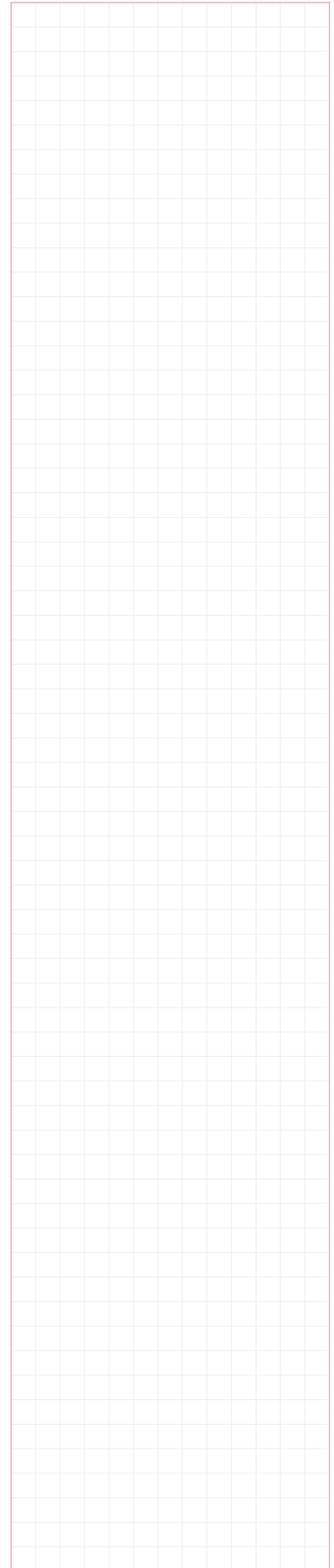
-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면서 대등함
- ✓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내용이 변하지 않음.

의미 관계	연결 어미	예
나열(and)	-고, -(으)며	형직이는 밥을 먹고, 철수는 빵을 먹는다. 하늘은 맑으며, 바람은 잠잠하다.
대조(but)	-(으)나, -지만	형직이는 100점을 맞았으나, 철수는 0점을 맞았다. 철수는 굴을 좋아하지만, 명수는 굴을 싫어한다.
선택(or)	-거나, -든지	자장면을 선택하거나 짬뽕을 선택하거라.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자.

도약 Point

연결 어미 '-고'가 쓰였지만 나열의 의미가 아닌 경우

두 문장이 나열의 의미로 연결되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나열의 의미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가 바로 '-고'야. 하지만, '-고'가 단순 나열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령, '엄마가 장을 보고 집에 왔다.'라는 문장은 연결 어미 '-고'가 사용되었지만 단순 나열의 의미라고 볼 수 없어. 앞 절과 뒤 절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도 완전히 변해 버려. 즉,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인 거지. 이렇듯, 연결 어미 '-고'가 사용되었지만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종속 합성어’의 개념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울 거야. **종속**이라는 건 쉽게 말해 **따끼리**라는 뜻이야. 이름을 통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문장들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문제가 발생**해. 예시를 들어 볼게.

② 비둘기는 괄약근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똥을 지린다.

②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야. ‘비둘기는 괄약근이 없다.’라는 문장과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똥을 지린다.’라는 문장이 이어진 건데, **앞 문장이 원인이고 뒤 문장이 결과인 형태야.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면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똥을 지리기 때문에 괄약근이 없다.’라는 괴상망측한 문장이 탄생**해버려. 원래의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이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기 때문이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문장 1] 비둘기는 괄약근이 없다	+	[문장 2]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똥을 지린다
비둘기는 괄약근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똥을 지린다. (O)		
[문장 2]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똥을 지린다	+	[문장 1] 비둘기는 괄약근이 없다
비둘기는 아무 곳이나 똥을 지려서 괄약근이 없다. (?!?!???)		
<p>☞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바꿀 수 없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 = 의미 변화가 생기거나 문장이 어그러진다)</p>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조건, 목적, 의도, 원인, 가정양보 등의 관계로 연결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임
- ✓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내용이 변하거나 문장이 어그러짐.

의미 관계	연결 어미	예
원인(이유)	-아서/-어서, -(으)니, -(으)므로 등	어제 돌맹이를 먹어서 배가 아프다. 야식을 자주 먹으니 살이 찼다.
조건	-(으)면, -거든 등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보다 약간 예쁜 사람을 만난다.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핀다.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등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100점을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양보	-(으)더라도, -아도/-어도, -더라도 등	엄마가 화를 낼지라도 나는 오늘 할 공부를 끝내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배경(상황)	-는데/-(으)는데, -(으)니	바람이 부는데, 우산을 펼쳐도 될까?
동시성	-자, -자마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1등급 도약 Point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구분

두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어.

1.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앞 절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할 수 있음.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_ 꽃은 피고, 해는 진다. (O)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_ 해는 저서, 날은 어두워졌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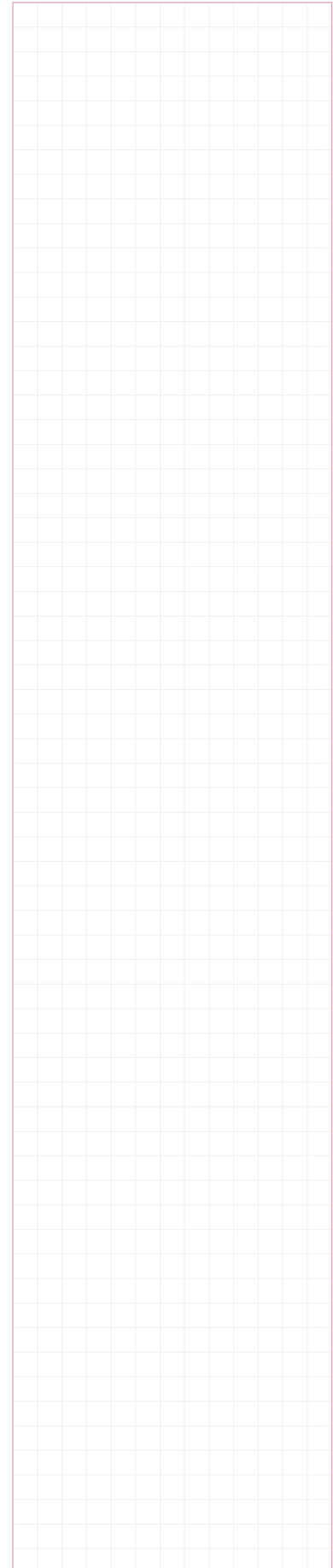
'은/는'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끊을 수 있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서는 쓰일 수 없다고 기억해주면 좋아.

2.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의 앞 절은 뒤 절의 안긴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음.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_ 꽃이 피고, 해가 진다. ⇒ 해가 꽃이 피고 진다. (X)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_ 해가 저서, 날이 어두워졌다 ⇒ 날이 해가 저서 어두워졌다. (O)

앞 절이 뒤 절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앞 절이 뒤 절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만 가능하겠지!



안은문장

③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

③은 얼핏 보면 하나의 문장, 즉 홑문장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 홑문장이라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야 하는데, ③은 그렇지 않거든. 엄밀히 따져본다면 ③에서는 '엽복동 - 자전거 도둑이다'와 '엽복동~도둑이었음이 밝혀지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어. 즉, ③도 **겹문장**이라는 거야.

하지만 ③은 이어진문장은 아니야.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진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지. ③은 오히려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다.'라는 문장이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라는 더 큰 문장 안에 안겨져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어. 이때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안긴문장을 안고 있는 더 큰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해. 즉, ③은 안은문장이고, ③ 안에 안겨 있는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다.'는 안긴문장이 되는 거야.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뉘어. ③에 안긴문장인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다'는 문장 안에 명사처럼 안겨 있으니 명사절이 되는 식이야.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

⇒ 문장 "엽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여 더 큰 문장 안에 안겨 있음.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안겨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겹문장 ✓ 안은문장 안에 안겨 있는 문장은 '안긴문장'이라고 함 ✓ 안긴문장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명사/관형/부사/서술/인용절'로 구분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작은 문장] S-P</div> 문장 </div>	
형식	설명
명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형태로 안겨 있는 문장 ✓ 문장 안에서 [], [], [], [] 등 다양한 기능
관형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안에서 []로 기능
부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안에서 []로 기능
서술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안에서 []로 기능
인용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이나 []을 인용 ✓ 문장 안에서 []로 기능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명사절은 **문장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실현**돼. ‘-(으)ㄴ’이나 ‘-기’가 보인다? 그럼, 일단 “명사절이 안겨 있지 않을까?”하고 의심해 봐도 돼. 그 다음에 정말 문장이 안겨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등으로 쓰일 수 있어(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사절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명사절	
✓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기능함.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등 다양한 기능)	
형식	예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명사절	※ 재상이가 부자 임 이 밝혀졌다. ⇒ [재상이가 부자 이다]에 명사형 어미 ‘-ㄴ’이 결합해 명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주어 로 기능함.
	※ 나는 명수가 공금을 횡령했 음 을 알게 되었다. ⇒ [명수가 공금을 횡령했 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해 명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 로 기능함.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	※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 기 가 무섭다. ⇒ [(주어 생략)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 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명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주어 로 기능함.
	※ 집에 가 기 전에 학원에 와라. ⇒ [(주어 생략) 집에 가 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명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관형어 로 기능함.

도약 Point

Q. 선생님! “집에 가기 전에 학원에 와라”에서 “집에 가기”는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니, 관형절 아닌가요?

A. 문장 안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절이라고 해서 전부 관형절인 건 아니야! ‘집에 가기’는 분명히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보아야 해.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더라도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절이라면 명사절이라고 판단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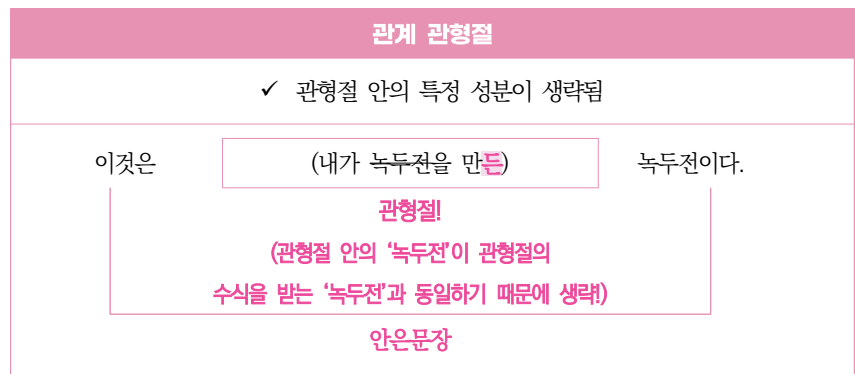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은문장이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 실현**돼.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관형어처럼 쓰이고 있다면 관형절이라고 판단하면 돼.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의 예시를 줄 테니, 안겨 있는 관형절을 한 번 찾아보자!

- ① 이것은 내가 만든 녹두전이다.
- ② 이것은 내가 홍보하는 녹두전이다.
- ③ 이것은 내가 좋아하던 녹두전이다.
- ④ 이것은 내가 나중에 먹을 녹두전이다.

⇒ ‘내가 만든’ / ‘내가 홍보하는’ / ‘내가 좋아하던’ / ‘내가 나중에 먹을’

관형절은 종류가 크게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뉘어.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어 있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성분이 관형절의 특정 성분과 같기 때문**이야. 생략이 없다면 똑같은 말이 중복되어 나오게 되니, 관형절 안의 성분을 생략하게 되는 거지. 가령 “이것은 내가 만든 녹두전이다.”라는 문장은 ‘이것은 녹두전이다’라는 큰 문장 안에 ‘내가 녹두전을 만들었다’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형태야. 이런 경우 관형절 안의 성분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성분이 같으니, **관형절 안의 성분은 생략**돼.



반면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지 않아**. 가령 “나는 명수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문장은 ‘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큰 문장에 ‘명수가 당선되었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형태인데, 관형절 안의 성분 중 그 무엇도 생략되지 않았지? 이걸 **관형절의 내용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성분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야. 즉, ‘명수가 당선되었다.’라는 문장의 내용과 ‘소문’이라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성분이 완전히 일치하니, 관형절 안의 성분 중 하나라도 생략되면 요 동격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야.

동격 관형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형절 안의 특정 성분이 생략되지 않음 ✓ 관형절의 내용과 수식받는 성분의 의미가 같음 	
이것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명수가 당선되었다는 </div> 녹두전이다.
관형절! (관형절의 내용과 수식받는 '소식'의 의미가 같음.) 안은문장	

관형절(관형사절)		
✓ 문장 안에서 관형사처럼(관형어로) 기능함.		
형식	예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관계 관형절	※ 이것은 동완이가 먹은(먹는, 먹을, 먹던) 빵이다. ⇒ [동완이가 (빵을) 먹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던'이 결합해 관형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관형어 로 기능함.
	동격 관형절	※ 나는 동완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동완이가 당선되었다]에 명사형 어미 '-는'이 결합해 관형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관형어 로 기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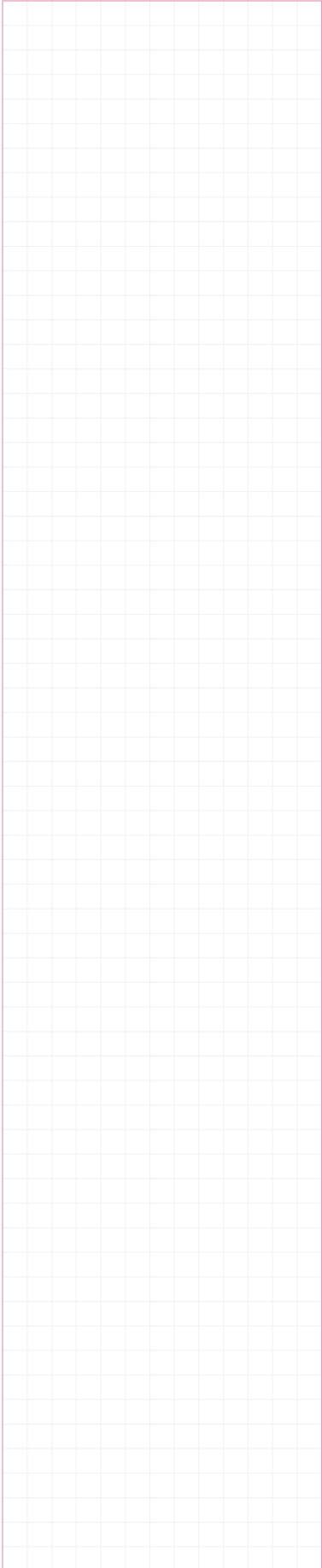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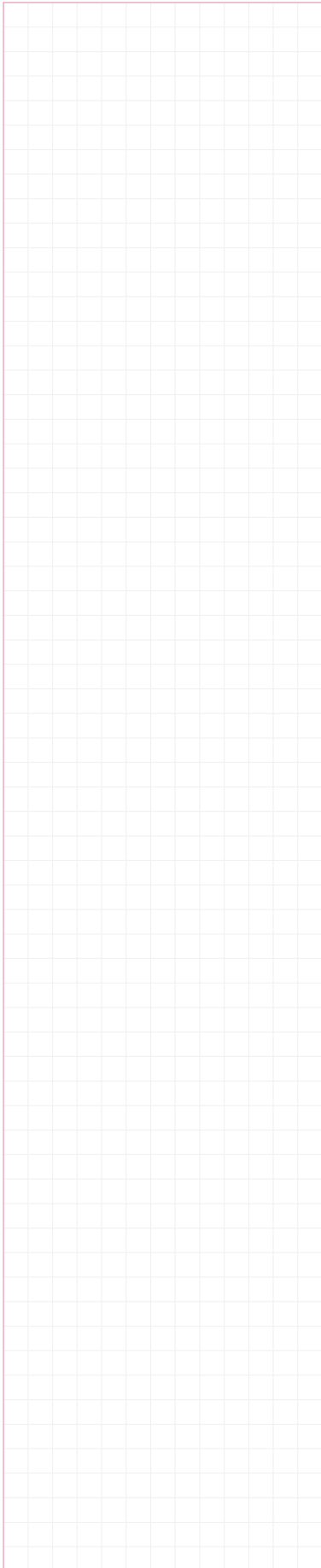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부사절은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야.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게, -도록, 연결 어미 -듯이, -(아/어)서**나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없이, 같이, 달리' 등이 쓰여 실현**돼.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부사어처럼 쓰이고 있다면 부사절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아래 문장들에서 부사절을 찾아서 괄호로 묶어 볼까?

- ① 형직이가 역하게 생겼다.
- ② 전기세가 오지게 나오도록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다.
- ③ 상인이가 소리도 없이 도착했다.
- ④ 심청이는 어머니가 없이 자랐다.

[정답]

☞ '형직이가 역하게' / '전기세가 오지게 나오도록' / '소리도 없이' / '어머니가 없이'





부사절	
✓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함.	
형식	예
부사형 어미 '-게', '-도록'	※ 그곳은 꽃이 예쁘게 피었다. ⇒ [꽃이 예쁘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해 부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로 기능함.
연결어미 '-듯이', '-(아/어)서'	※ 나는 비가 와서 늦었다. ⇒ [비가 오다]에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해 부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로 기능함.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그가 소리도 없이 떠났다. ⇒ [소리도 없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해 부사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로 기능함.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자, 요정도 왔으면 대충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 대한 감이 오지? **서술절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야.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없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만약 **문장 안에서 주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면 서술절이 안겨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해.** 예를 들어줄게.

- ① 하림이는 얼굴이 예쁘다.
- ② 기린은 목이 길다.

①과 ②는 주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야. 이유는 서술절이 안겨 있기 때문인데, ①의 '얼굴이 예쁘다'와 ②의 '목이 길다'가 서술절에 해당해.

서술절	
✓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기능함.	
형식	예
주어 (주어 + 서술어)의 구성 ✓ 표면적으로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홀문장으로 오인하기 쉬움. ✓ 주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장은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보아야 함.	※ 형주는 돈이 많다 . ⇒ [돈이 많다]가 별다른 표지 없이 서술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서술어 로 기능함.

인용절을 가진 인용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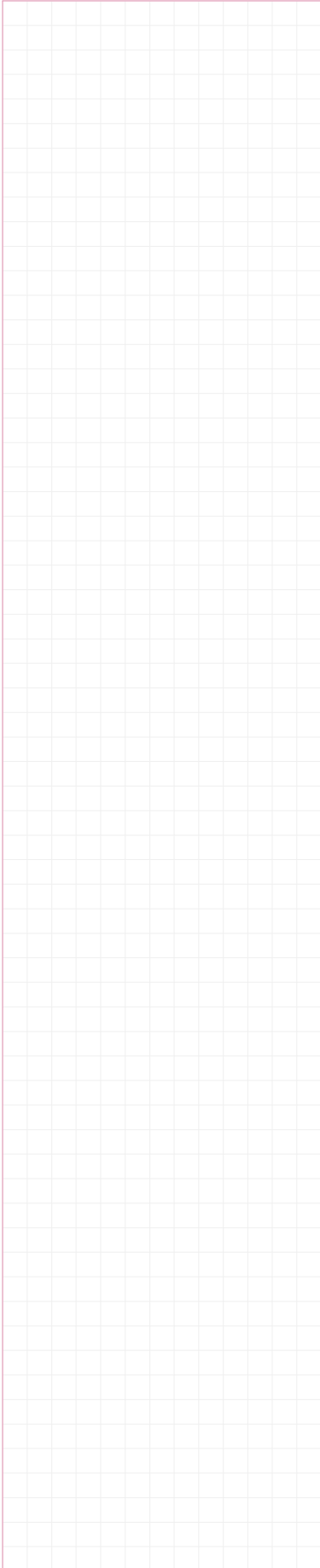
인용절은 말 그대로 **인용된 절**을 말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해서 문장 안에 위치시킨다면, 그게 인용절이 되는 거야. 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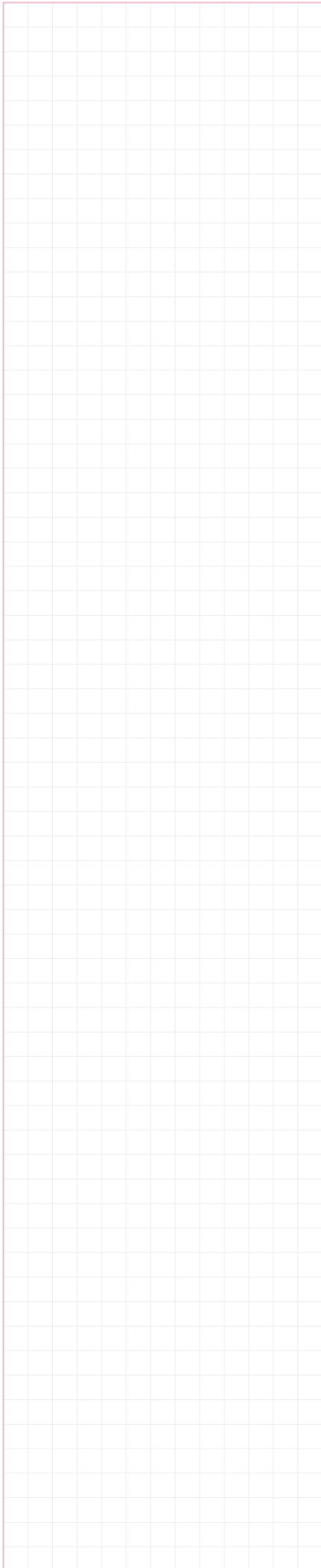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철수가 “나는 북극곰이 좋아.”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

위 문장에는 “나는 북극곰이 좋아.”라는 철수의 말이 문장 형태로 안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인용절이야. 인용절은 또 크게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뉘는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알아둬야 해.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말해. 이때, 인용했다는 표시로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절 뒤에는 **부사격 조사 ‘라고’**를 붙여.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변형해서 인용**하는 걸 말해. 간접 인용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따옴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또, 인용절 뒤에는 ‘라고’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하게 돼. 아래 문장이 간접 인용의 대표적 예시야.

철수가 북극곰이 좋다고 말했다. (간접 인용)

인용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 ✓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함 	
형식	예
직접 인용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 ✓ 인용 부호로 큰따옴표 사용(“”) ✓ 부사격 조사 ‘라고’ 사용 	※ 철수야, 선생님이 “철수 데려와” 라고 하셨어. ⇒ [철수 데려와] 가 변형 없이, 큰따옴표와 부사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인용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로 기능함.
간접 인용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하여(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 ✓ 인용부호 사용하지 않음 ✓ 부사격 조사 ‘고’ 사용 	※ 철수야, 선생님이 너 데려오 라고 하셨어. ⇒ [철수 데려와] 가 변형되어, 인용 부호 없이, 부사격 조사 ‘고’가 붙어 인용절 로 안겨 있음.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로 기능함.





도약 Point

직접 인용절 ⇒ 간접 인용절 / 간접 인용절 ⇒ 직접 인용절 유의 사항

내 외삼촌 동생 철수가 어제, “나는 내일 아빠랑 낚시하러 갈 거야”라고 했어. 라는 직접 인용절이 안긴 문장을 직접 인용절로 고친다고 해 보자. 적절하게 고친다면 내 삼촌 동생 철수가 어제, 자기는 오늘 외삼촌이랑(or 자기 아빠랑) 낚시하러 간다고 했어. 정도로 수정해야 해. 이때 시간 표지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직접 인용절 안에 있는 ‘나’ or ‘아빠’를 그대로 쓴다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이처럼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는 문장의 내용을 적절하게 바꿔 줘야 해.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겠지?

적용 훈련

※ 다음 문장들을 <조건>에 따라 분류하시오.

<조건>

* 흘문장인지 겹문장인지 쓰시오.

* 겹문장이라면 이어진문장인지 안은문장인지 밝히시오.

* 이어진문장이라면 대등하게 연결되었는지 종속적으로 연결되었는지 밝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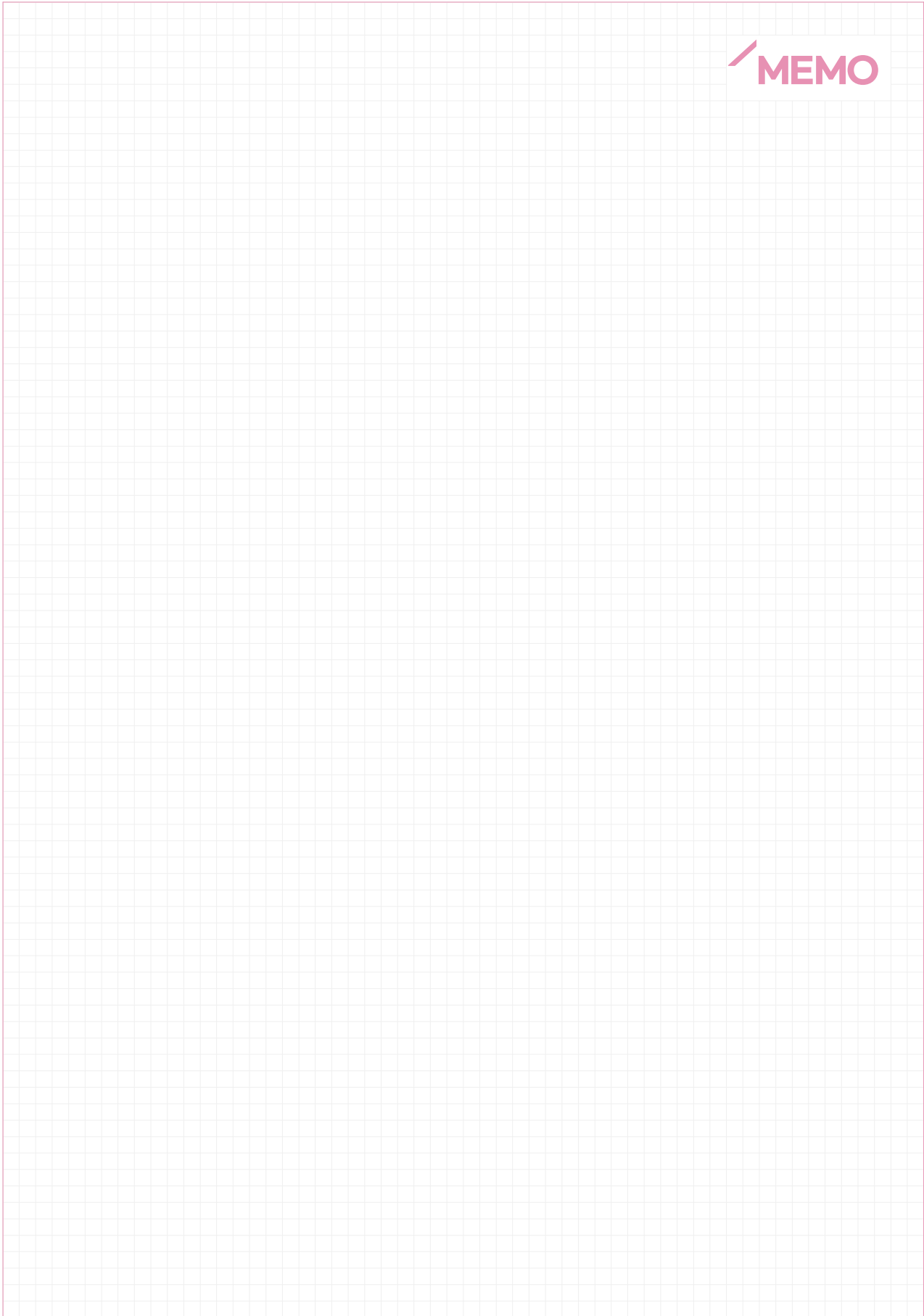
* 안은문장이라면 어떤 절이 안겨 있는지 밝히시오.

- ① 내 머리는 빛이 난다.
- ② 이천 원에 구매한 리플코인의 가치가 오백 원까지 떨어졌다.
- ③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지 적삼 다 적시셨네.
- ④ 저기 네 남자친구 지나간다.
- ⑤ 병진이 형은 뒤지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
- ⑥ 내 눈을 바라보면 넌 행복해진다.
- ⑦ 나는 행복해.

키워드로 정리 _ 문장의 짜임 CORE



MEMO



18. <보기>는 ‘문장의 종류’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고1 2013년 3월 학평 12번)

<보 기>
문장의 종류

- **흐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예) 날씨가 맑다.
-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 **안은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흐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예) ㉠
- **이어진문장**: 둘 이상의 흐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예)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① 민수는 성격이 좋은 학생이다.
- ② 우리 집 정원에 장미꽃이 피었다.
- ③ 다예가 교실에서 소설책을 읽었다.
- ④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 있다.
- 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19. <보기>의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4년 6월 학평 A 12번)

<보 기>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흐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 ‘겹문장’이 있다. 겹문장에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다. 전자는 흐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흐문장과 흐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① 가을이 오면 곡식이 익는다.
- ② 함박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③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
- ④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20.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6년 3월 학평 13번)

<보기 1>

이어진문장

둘 이상의 흐문장이 이어져 있는 문장으로, 주어가 같은 흐문장이 이어질 때는 주어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음.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흐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짐.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 흐문장과 뒤 흐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원인, 조건, 의도’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짐.

<보기 2>

- ㄱ. 암벽 등반은 힘들고 재미있다.
- ㄴ. 암벽 등반은 힘들어서 재미있다.
- ㄷ. 암벽 등반은 힘들지만 재미있다.

- ① ㄱ, ㄴ, ㄷ은 ‘암벽 등반은 힘들다.’와 ‘암벽 등반은 재미있다.’라는 두 흐문장이 이어진 문장이군.
- ② ㄱ, ㄴ, ㄷ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어진 문장이군.
- ③ ㄱ, ㄴ, ㄷ에서 뒤 절의 주어가 없는 것은 앞 절과 주어가 같기 때문이군.
- ④ ㄱ, ㄷ은 두 흐문장이 각각 나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어미 ‘-고’와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군.
- ⑤ ㄴ은 두 흐문장이 원인의 의미를 갖는 어미 ‘-어서’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군.

2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고2 2016년 6월 학평 13번)

〈보 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 이때 앞의 절과 뒤의 절은 인과, ㉠ 조건, 의도, 양보, 배경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 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다.
- ② 책을 읽으려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다.
- ③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④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자꾸 불렀다.
- ⑤ 책을 다양하게 읽어서 그는 지식이 풍부하다.

2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고1 2016년 6월 학평 13번)

〈보 기〉

◦ 재희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위 문장에서 '아무도 모르게'는 단어가 아니라 주어인 '아무도'와 서술어인 '모르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은 '재희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참여한다'를 수식하여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 주면서 수식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안겨 있는 문장을 ㉠ 부사절이라 한다.

- ① 이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 ② 병수는 이가 시리도록 차기웠다.
- ③ 은기는 꼭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④ 승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 ⑤ 민우는 우리가 어제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2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2 2015년 6월 학평 13번)

〈보 기〉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말하며, '안은문장'은 안긴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안긴문장은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 ㉠ 영수는 키가 매우 크다.
- ㉡ 영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
- ㉢ 영수는 말도 없이 학교로 가 버렸다.
- ㉣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 ㉤ 영수는 영희에게 빨리 오라고 외쳤다.

- ①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한다.
- ② ㉡의 안긴문장은 체언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를 수식한다.
- ④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 ⑤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24. <보기 1>의 자료를 읽고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4년 9월 학평 AB형 14번)

〈보기 1〉

절(節)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결합되어,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서술절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절을 포함한 전체 문장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이외에 서술절(주어+서술어)을 지니고 있다.

〈보기 2〉

-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 ㄴ. 이 산은 나무가 많다.
- ㄷ.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② ㄱ의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④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⑤ ㄴ의 '나무가'와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2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고2 2020년 9월 학평 14번)

〈학습 활동〉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로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예를 들어 관형절은 안은문장 안에서 절 전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다음 자료에서 안긴문장의 종류와 기능을 파악해 보자.

〈자료〉

- ㉠ 누나가 주인임이 밝혀졌다.
- ㉡ 삼촌은 농담을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
- ㉢ 형은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 ①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에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②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에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③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에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④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에서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⑤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에서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군.

26.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13번)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펥펥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펥펥'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현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2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이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2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2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수능 39번)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많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3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A 13번)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31.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32.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14번)

<학습 활동>

접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접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다음 밑줄 친 접문장 ㉠~㉥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 기상청은 ㉠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 시민들은 ㉡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 들었다.
- ㉢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갔다.
- 나는 나중에야 ㉣ 그녀는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깨 달았다.
- 삼촌은 주말에 ㉤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

⋮

- ① ㉠은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 ② ㉡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③ ㉢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④ ㉣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33.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및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 ① ㉠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여객선이 도착한 항구엔 안개가 껴다.
- ② ㉡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 ③ ㉢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
아버지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④ ㉣ [열음으로 된 성이 나타났다.
그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 ⑤ ㉤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언니는 간이역만 지나치는 기차를 탔다.

34.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38번)

<보 기>

다음 두 문장에 쓰인 관형사절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실'이라는 점은 같지만 두 관형사절의 성격은 다르다.

- (가) 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 (나) 나는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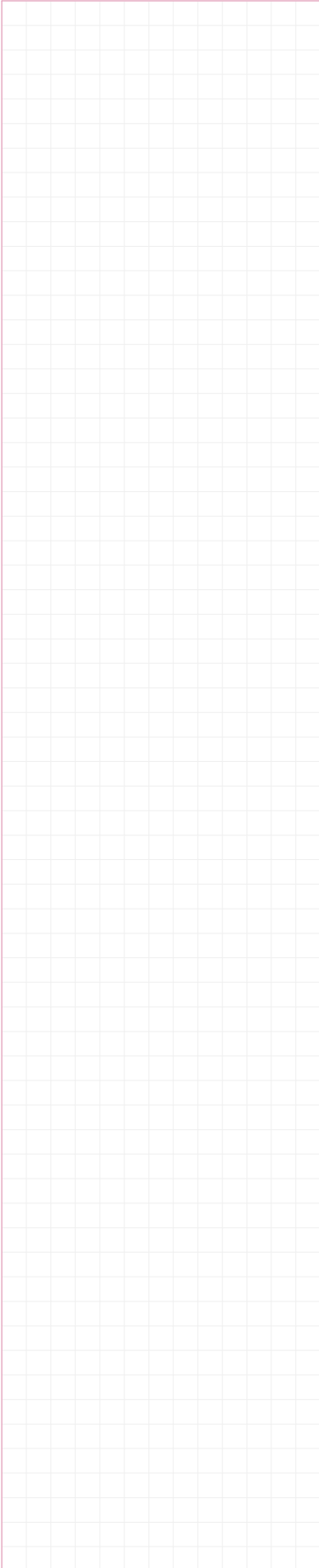
(가)는 '사실'이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의 주어에 해당하여, ㉠ 수식 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나)는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동생이 열심히 노력하였다.'가 '사실'의 내용에 해당하여, ㉡ 수식 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 ① ㉠: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 ② ㉠: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놀랐다.
- ③ ㉡: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④ ㉡: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⑤ ㉡: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Theme

III

문법 요소 I _ 종결, 높임, 시간 표현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은 종결 표현을 통해 결정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결 어미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결정되는 거야. 문장의 유형은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뉘어. 하나하나 알아볼까?

문장의 유형	예시
평서문	동완이가 개미를 퍼먹는다.
의문문	동완이가 개미를 좋아할까?
명령문	동완아 개미 먹어라.
청유문	개미 먹읍시다.
감탄문	개미는 맛있구나!

평서문

평서문(平敍文)은 **문장의 화자가 어떤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이야. 말 그대로 내용을 평범하게(平) 전달하는(敍) 문장이지! 평서문은 '-다, -네'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붙여.

평서문의 예시	의미 or 기능
단소 살인마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단소 살인마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평범하게 전달.
동완이 개미 먹네.	동완이가 개미를 먹는다는 사실을 평범하게 전달.

의문문

의문문(疑問文)은 말 그대로 **문장의 화자가 듣는 이에게 의문을 던지는 문장**이야. 의문문은 '-어/아(요)', '-니', '-냐', '-르까'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문장의 끝에는 물음표(?)를 붙여.

대부분의 의문문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대답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가령 '밥 먹었니?'라는 문장은 '긍정' 혹은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지만 '무엇을 먹었니?'라는 문장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앞의 문장처럼 **'긍정' 혹은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불러.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판정이 딱 나뉘는 의문문이라는 뜻이야! 반면 뒤의 문장처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이 말이야. **설명 의문문에는 보통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언제,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밥 먹었니? ☞ 예 or 아니오 (Yes or No!)

☞ 판정 의문문

무엇을 먹었니? ☞ 설명해야 함!

☞ 설명 의문문

♥ Yes or No의 대답을 요구하면 '판정 의문문' /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 의문문'

그런데 간혹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도 있어. 가령 '그렇게 치먹어서 되겠니?'는 의형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 '수사'는 말을 꾸민다는 뜻이니 수사 의문문은 무늬만 의문문인, '꾸밈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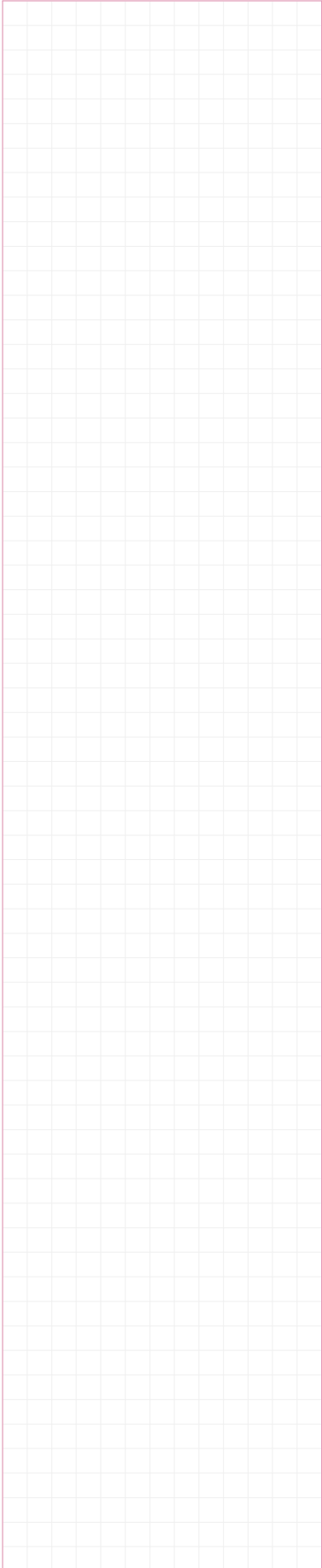
내가 그걸 모르겠나? ☞ 대답 요구 X, '나도 그것을 안다'는 내용을 서술
죽을래? (단소를 휘두르며) ☞ 대답 요구 X, '단소로 너를 죽이겠다'는 내용을 서술

그만 좀 먹을까? ☞ 대답 요구 X, 그만 먹으라는 명령의 의도

수사(꾸밈) 의문문!

♥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수사 의문문!'

		의문문
대답 요구	판정 의문문	긍정, 부정의 대답을 요구함. Yes or No! ex) 밥 먹었니?
	설명 의문문	설명을 요구함. (문장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음.) ex) 무엇을 먹었니?
대답 요구 X	수사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진술이나 명령의 효과 ex) 그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 명령의 의미라고 해서 명령문인 것은 아님! (문장의 유형은 종결 어미로 구분)



명령문

명령문(命令文)은 말 그대로 **다른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야. ‘밥 먹어라.’가 대표적인 명령문이지! 명령문은 ‘-이라/어라’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 명령문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데 간단히 정리하고 설명해 줄게!

명령문	
1	서술어에는 동사만 쓰일 수 있다. (형용사나 체언 + 서술격 조사 불가)
2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3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① 서술어에는 동사만 쓰일 수 있다. ⇨ 동작을 요구!

→ 청자가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명령문이야. 행동하도록 한다는 건 결국 **동작을 요구** 한다는 거야.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니까 **명령문의 서술어에는 반드시 동사를** 쓸 수밖에 없어. 형용사나 체언 +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괴상망측한 문장이 탄생해. (*철수야, 못생겨라.', *동원아 재미이여라!)

행동(動)을 요구 = 동(動)작을 요구

⇨ 서술어는 동사만!

②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 주어는 당연히 청자!

→ 명령문은 다른 이에게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때 ‘다른 이’는 청자를 말해. 따라서 **명령문의 주어는 자연스럽게 청자**가 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한 주어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철수가 밥 먹어라.’ / ‘영수야 집에 가라.’

⇨ 굳이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 생략

⇨ ‘밥 먹어라.’ / ‘집에 가라.’

③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 과거에 어떻게 명령을 전달해..

→ 과거형으로 명령할 순 없지 않겠니? ‘밥 먹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니 말이야!

도약 Point

Q. “(어린아이에게) 아이 예뻐라!” 선생님! 형용사로도 명령문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명령문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어야 해. “아이 예뻐라!”라는 문장은 아이가 예쁘다고 감탄하는 문장이지, 아이에게 예쁘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야. 종결 어미 ‘-아라/-어라’는 감탄문에 붙을 수도 있는데, 문장의 의미를 잘 따져서 명령문인지, 감탄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청유문

청유문(請誘文)은 말하는 이가 다른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야. 청유문은 ‘-자’, ‘-십시오’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서술어에는 동사만 사용될 수 있어. 행동(動)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작(動)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거지!

청유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말하는 이(화자)와 듣는 이(청자)를 모두 지칭해. 애초에 청유문의 정의 자체가 <말하는 이가 다른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니 말이야! 그래서 ‘밥 먹자’ 하는 식으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또,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과는 함께 쓰일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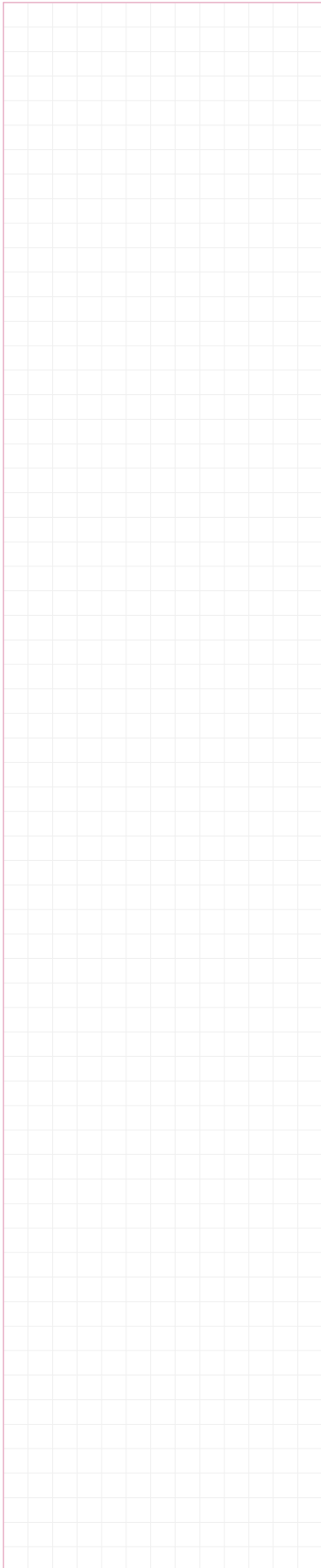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청유문

1	서술어에는 동사만 쓰일 수 있다. (형용사나 체언 + 서술격 조사 불가)
2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3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청유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모두 지칭하지만, 청유문의 주어가 청자만을 지칭하거나 화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청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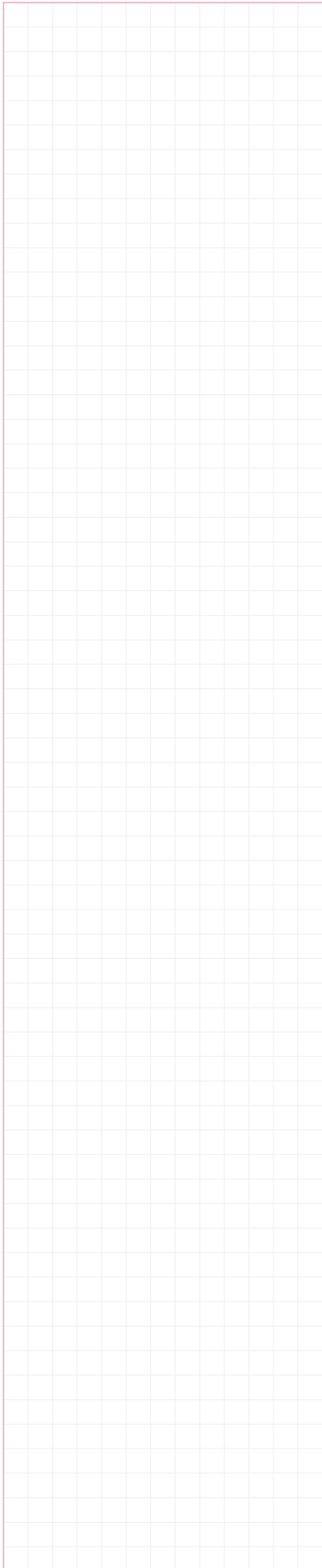
1. 일반적인 청유문 (주어가 화자 + 청자)	우리 밥 먹자.
2. 청자만 주어인 청유문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하자.
3. 화자만 주어인 청유문	잠 좀 자자.



감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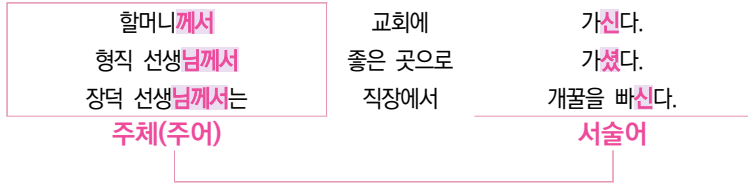
감탄문(感歎文)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않아 **독백하듯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야. 감탄문은 **'-는구나', '-구나', '-아라/-어라'**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느낌표(!)를 붙여. **'-는구나'**는 '보는구나!', '하는구나!'처럼 **동사**와 어울리고, **'-구나'**는 '예쁘구나!', '힘들구나!'처럼 **형용사**와 어울려.

'-아라/-어라'는 보통 **형용사와 결합하여 화자의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명령형 종결 어미로 쓰일 때도 있어.** 그러나, '-아라/-어라'가 있더라도 문맥을 활용하여 감탄문인지 명령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

1. 주체 뒤에 '-님'을 붙임.
2.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를 사용함.
3.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
4.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진지, 덕, 연세, 존함, 잡수시다, 주무시다……)



주체 높임 _ 간접 높임

주체를 직접 높이지 않고,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체, 소유물, 생각, 성품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해(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이 되겠지?). 가령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문장은 ‘있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더해 어머니의 고민을 높이고 있어. 이때, 고민은 어머니의 것이니 고민을 높이면 자연스레 어머니를 높이게 돼. **간접 높임을 할 때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만을 사용**해.

* 간접 높임의 추가 예시

정민 교수님은 얼굴이 잘생기셨다.

- ▶ 주체(정민 교수님)의 신체 일부인 ‘머리’를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임.

스님은 좋은 차가 있으시다.

- ▶ 주체(스님)의 소유물인 ‘차’를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임.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하시다.

- ▶ 주체(할머니)의 성품인 ‘마음’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임.

도약 Point

주체 높임의 오류 _ 높임 대상의 오류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 하지만 따져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 해당 문장에서 ‘나오셨습니다’라는 높임 표현은 과연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걸까? 잘 확인해 보면 고객님이 아니라 ‘커피’를 높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높임 표현을 사용하려는 생각만 앞서다 보니,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야.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는 높이려는 대상을 정확하게 높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해.

도약 Point

‘당신’의 3인칭 용법

당신은 보통 대화 상대를 지칭하는 말(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지만, 간혹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높여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해. 다음과 같은 식이야. “(아들이 아버지에게)돌아가신 할머니는 돈가스를 드셔보신 적이 없어요. 당신께서 돈가스를 맛보고 싶다고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에서 ‘당신’은 대화 상대인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니를 지칭하는 말이야. 이처럼 ‘당신’은 3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는 높임의 의미를 지니게 돼.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개념이니 알고 있어야 해.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은 **말하는 이가 서술어 영향을 미치는 대상(객체)를 높이는 방법**이야. 말이 조금 어려우니 풀어서 설명해 줄게.

나는 오늘 장모에게 선물을 줬다.
객체(대상) **서술어**

위 문장은 높여야 할 대상인 ‘장모(아내의 어머니)’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려. 이때 ‘장모’는 이때 장모를 높이는 방법을 바로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 이름이 객체 높임법인 이유는 ‘장모’가 ‘주다’라는 서술어가 영향을 주는 대상(객체)이기 때문이야. 서술어가 영향을 주는 대상이 목적어와 부사어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을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정의하기도 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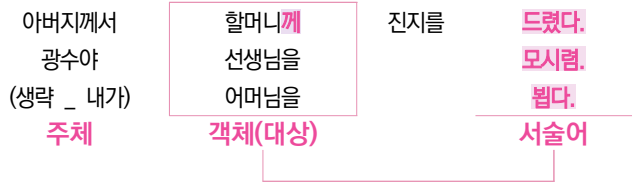
- ① 객체인 장모 뒤에 ‘-님’을 붙인다.
- ②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한다.
- ③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라고 표현한다.

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모를 높일 수 있겠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높임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주체 높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만 사용해버리면, 높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장이 어색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각각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

1. 객체(목적어, 부사어) 뒤에 '-님'을 붙임.
2.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함.
3.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드리다, 모시다, 뵈다, 여쭙다...)

_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와 구분할 것!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방법**을 말해(사실 낮추는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뒤에서 설명해 줄게). 객체 높임법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고, 상대 높임법은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분명히 달라. 자 그럼 아래 예문을 보고 말을 듣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선생아 퇴근해라.

위 문장에서 말을 듣는 상대는 '선생'이야. 일반적으로는 높임의 대상일 테니, 위 문장은 굉장히 어색하게 보여. 어떻게 하면 선생을 높여줄 수 있을까? 답은 다음과 같아.

- ① 말을 듣는 상대인 선생 뒤에 '-님'을 붙인다.
- ② '퇴근해라' 대신 '퇴근하세요' 혹은 '퇴근하십시오'를 사용한다. (종결 어미를 바꾼다.)

상대를 높이는 방법은 꽤 단순해. 다른 높임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법만 사용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도 돼. 위 문장에서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거나, '-님'을 붙이지 않는다면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각각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상대 높임법의 실현 방법〉

1. 상대(말을 듣는 청자) 뒤에 ‘-님’을 붙임.
2. 높임의 의미를 지닌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면,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말하는 거야. **종결 어미를 사용한 상대 높임법은 높임의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야. 예를 든다면 ‘가시오’도 높임 표현이고 ‘가십시오’도 높임 표현인데, 뒤의 표현이 상대를 훨씬 높여주는 느낌이 들지? 더 나아가 어떤 종결 어미는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기능을 하기도 해. ‘집에 가게’의 ‘-게’나 ‘집에 가라’의 ‘-아라’처럼 말이야.

이처럼 **종결 어미를 통한 상대 높임법에는 등급이 있고, 여기에는 상대를 낮추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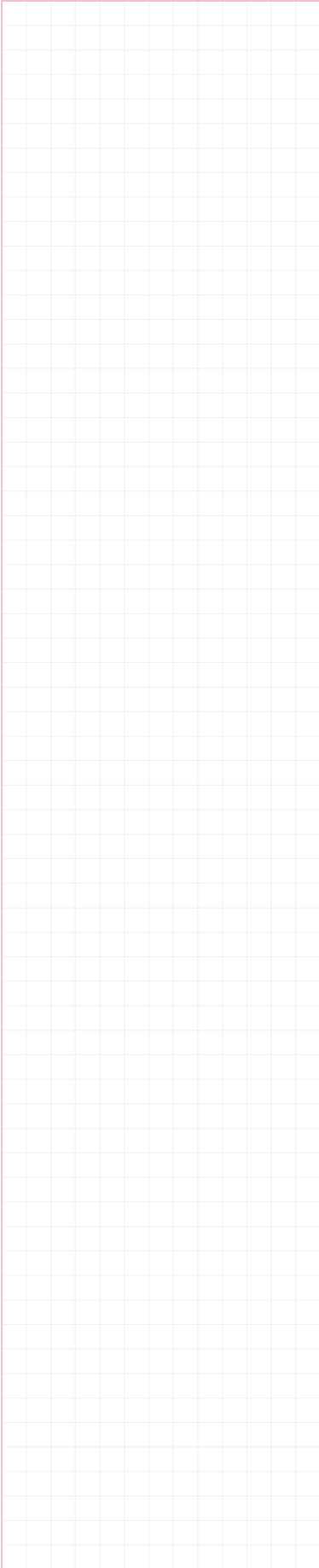
상대 높임법의 등급		예	
격식체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	하십시오체(아주높임)	에이스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등
		하오체(예사높임)	에이스는 죽었소, 죽었소?, 죽었구려! 등
	듣는 이를 낮추는 표현	하게체(예사낮춤)	에이스는 죽었네, 죽었는가? 죽었구먼! 등
		해라체(아주낮춤)	에이스는 죽었다, 죽었나? / 죽었니?, 죽었구나! 등
비격식체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	해요체(두루높임)	에이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군요! 등
	듣는 이를 낮추는 표현	해체(두루낮춤)	에이스가 죽었어, 죽었어? / 죽었지?, 죽었군! 등

도약 Point

Q. 선생님, 격식체는 뭐고 비격식체는 뭐니까?

A. 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을 갖추어 높임 or 낮춤을 실행하는 방법이고, 비격식체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높임 or 낮춤을 실행하는 방법이야. 격식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자연스럽지만, 굳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격식체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 가정, 회사에서 회의할 때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가족들 간의 편한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 진지를 잡수셨습니까?” 이라면 다소 어색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비격식체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군대에서 해요체를 금지하는 이유는 해요체가 비격식체이기 때문이야. 격식을 갖춰 상관을 대해야 군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명목이지. 그래서 상관에게 “에이스가 죽었어요?” 이라면 곤란한 거야.



도약 Point

상대 높임법의 대상은?

말을 할 때 반드시 청자를 언급하지는 않지? 오히려 청자를 언급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대상은 문장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아. 이때는 맥락을 잘 따져서 높임 or 낮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해.

적용 훈련

□ 다음 밑줄 친 문장의 종류를 밝히시오. (의문문의 경우 판정, 설명, 수사 의문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으시오.)

- ① 철수: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구구.
- ② 철수: 비둘기야, 맛있니?
- ③ 비둘기: 맛있구나!
- ④ 동생: 오빠, 정신 나갔어?

①

②

③

④

□ 아래 문장들은 높임법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문장이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밝히고,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수정하시오.

- ① (말단 사원이 회장님에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 ② (한참 선배의 무대를 본 후배가 자기 동생에게) 선배가 무대를 뒤집어 놓았다.
- ③ (정치인이 연설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 ④ 철수가 어머니에게 물건을 가져다 줬다.
- ⑤ 요금이 발생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 아래 대사를 <조건>에 맞게 높여 쓰시오.

남성: ㉠ 너 텔레비전도 안 보냐? 너 뉴스도 안 보지?

청년: 저는 계산하고 나가셨으면 뭐라고 안 하려고 했다고요.

남성: ㉡ 지금 금융 위기 모르냐?

청년: 잘 모르겠어요.

<조건>

- 하십시오체를 사용할 것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할 것
- 호칭은 적절히 변경할 것
- 주어가 생략된 문장은 바꾸어 쓸 때 주어를 갖추지 않아도 됨

키워드로 정리 _ 종결, 높임 표현 CORE



높임 표현

주체 높임

주격 조사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

간접 높임

객체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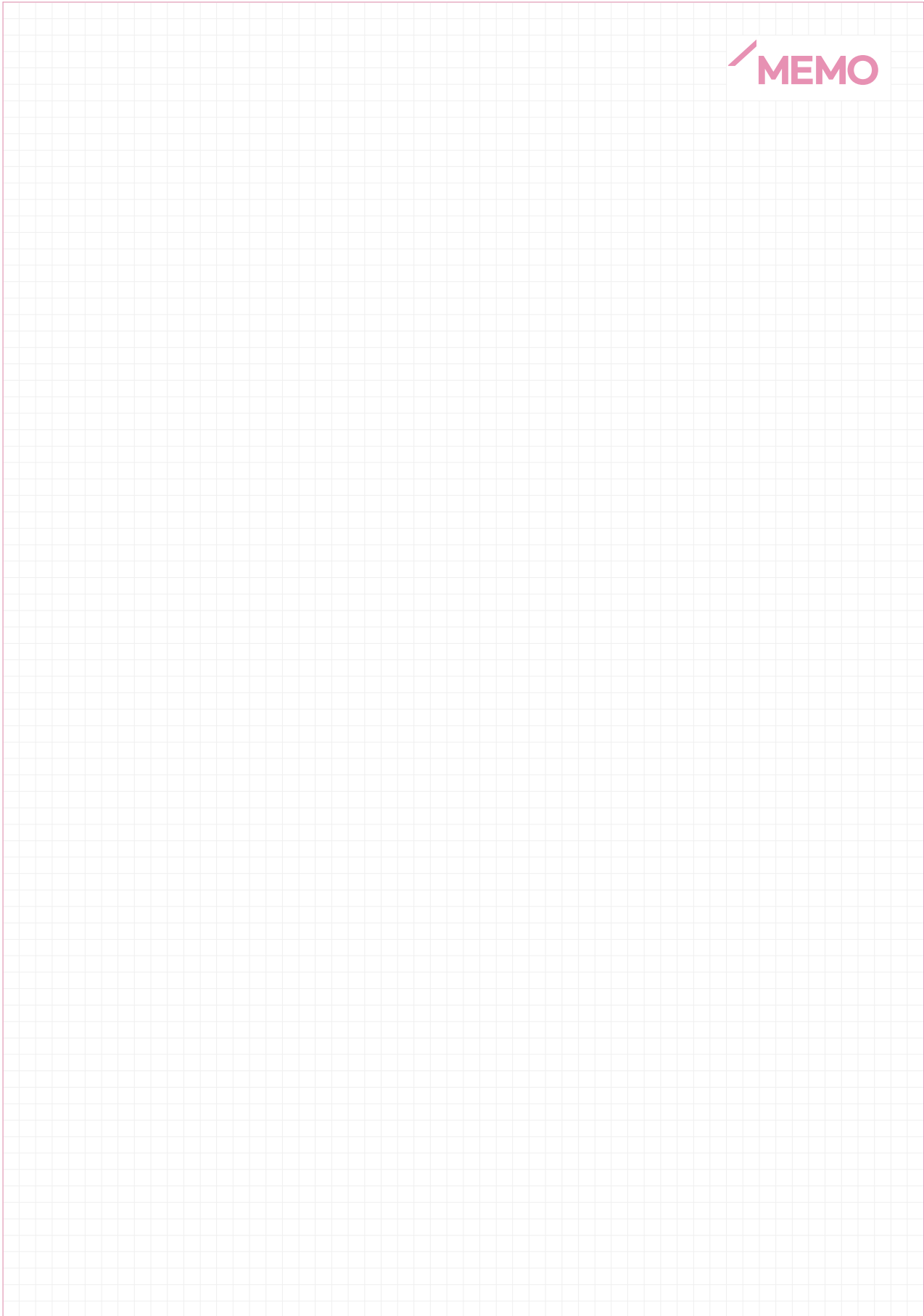
부사격 조사

특수 어휘

상대 높임

종결 표현

MEMO



과거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사건시)이 말하는 시점(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말해. 쉽게 말해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면 과거시제인 거야.

사건시(사건이 일어난 시점) 발화시(말하는 시점)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한다!
= 사건시 > 발화시

과거 시제의 예시

* 내가 먹은 빵이다.

빵을 먹음 (사건시) “빵 먹었다.” (발화시)

→ 빵을 먹은 시점(사건시)이 발화시보다 선행함(먼저임).

* 형직 선생님의 두개골이 골절됐어.

형직이 두개골 깨짐 (사건시) “선생님 두개골 깨졌다.” (발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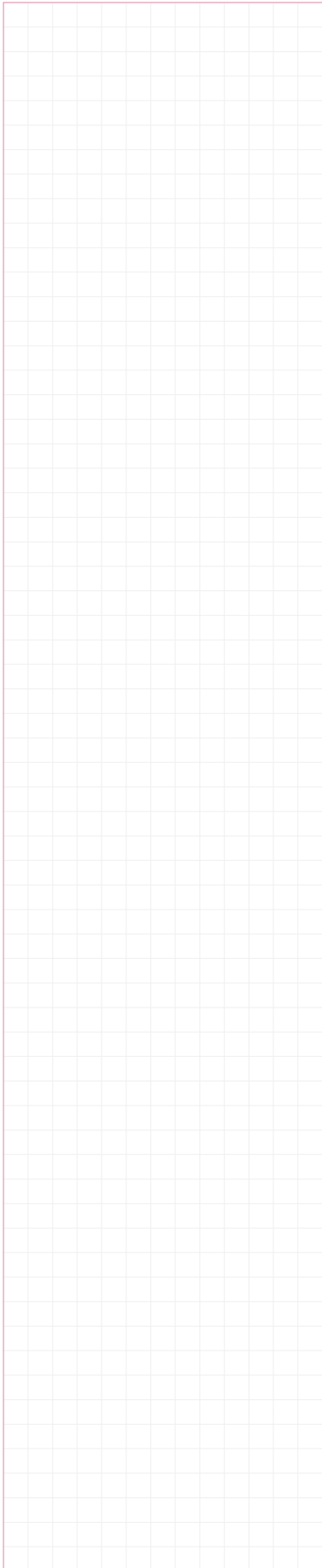
→ 형직 선생님의 두개골이 골절된 시점(사건시)이 발화시보다 선행함(먼저임).

① 선어말 어미를 통한 과거 시제 실현

기초적인 이야기를 먼저하고 시작하면, **선어말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동시에 어말 어미보다 먼저(선) 쓰이는 어미야. 즉, **앞에는 어간이, 뒤에는 어말 어미(혹은 다른 선어말 어미)**가 와야 한다는 거지. 따라서 선어말 어미는 앞과 뒤에 모두 결합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말 어미>처럼 **앞뒤에 - 표**시를 해야 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았-/었-’, ‘-았었-/었었-’, ‘-더-’가 있어. ‘떡다’의 어간 ‘떡-’에 해당 선어말 어미들을 붙여보면, ‘떡었다, 떡더라, 떡었었다’처럼 과거 시제의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 선어말 어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았/었-’	(예) 네가 오기 전에 치킨은 이미 사라졌다(사라지었다).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	(예) 나는 작년에 얼굴이 괜찮았었다.
	선어말 어미 ‘-더-’	(예) 철수가 치킨을 맛있게 먹더라.



도약 Point

‘-았/었-’과 ‘-았었/었었-’의 차이

‘-았/었-’과 ‘-았었/었었-’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았었/었었-’은 추가적인 의미를 지녀. ‘-았었/었었-’은 **과거와 현재의 강한 단절을** 보여주는 선어말 어미야. “즉, 내 얼굴이 **괜찮았었다.**”라고 말한다면, 과거에는 얼굴이 괜찮았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돼.

도약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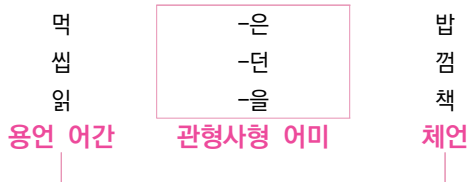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았/었-’

‘-았/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았/었-’이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과거 시제임이 드러날 수 있어. 하지만 ‘-았/었-’이 사용되어도 과거 시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어머니의 돈을 빼돌린 친구에게 “**넌 걸리면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경우 친구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과거 시제라고 볼 수 없어. 오히려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또, ‘**철수가 엄마를 달았다**’라는 문장은 ‘-았-’을 썼지만, 현재 시제에 해당해(동사에 -았/었-이 결합했을 때는 현재 시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처럼 ‘-았/었-’이 쓰였음에도 과거 시제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시제를 판단할 때는 항상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따져 줘야 해.

② 관형사형 어미를 통한 과거 시제 실현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을 마치 관형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어미를 말해. 가령 ‘떡다’의 어간인 ‘떡-’에 어미 ‘-은’이 붙으면 ‘**먹은 빵**’처럼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주게 돼. 어미 ‘-은’이 붙어서 동사인 ‘떡다’가 마치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해주게 된 거지. 즉, 어미 ‘-은’은 앞에 오는 용언의 성질을 마치 관형사처럼 바꾸어준 거야. 이런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불러. 관형사형 어미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어미가 오지 않아. 관형사형 어미의 앞에는 어간이 붙겠지만, 뒤에는 다른 어미가 붙지 않으니. **관형사형 어미를 표기할 때는 앞에만 - 표시**해주면 돼. <-은>처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 붙는 ‘-(으)ㄴ’, ‘-던’과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으로 나뉘어. 조금 복잡하니, 암기하려 하기보다는 예문을 만들어 직접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뽑아내 보고, 이를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동사 '먹다'가 '빵'을 수식하도록 '먹-'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줘야겠어.

→ '먹은', '먹던', '먹는', '먹을'처럼 다양한 어미가 붙을 수 있네.

→ 이 중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뭐가 있을까?

☞ '-은'과 '-던'이다!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동사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	(예) 내가 잡은 고기다. 내가 떼어난 측두엽이다. 전 여친과 자주 왔던 카페다.
	형용사	관형사형 어미 '-던'	(예) 작년만 해도 괜찮았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못생겼던 나

③ 시간 부사어를 통한 과거 시제 실현

시간 부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야. '어제', '작년', '옛날' 등이 시간 부사에 속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쓰인다면, 당연히 과거 시제겠지? 이걸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어제 바 선생님을 만났다.

현재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사건시)이 말하는 시점(발화시)과 일치하는 시제를 말해. 쉽게 말해 현재 일어나는 일을 말하면 현재 시제인 거야.

사건시(사건이 일어난 시점) = 발화시(말하는 시점)

☞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한다!

사건시 = 발화시

현재 시제의 예시

* 해가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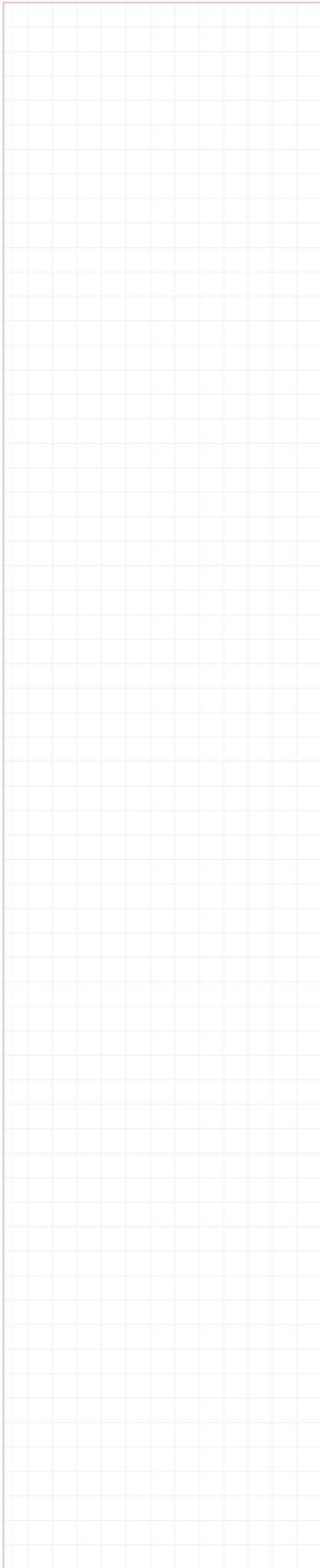
해가 짐 (사건시) = "해가 진다." (발화시)

→ 해가 뜨는 시점(사건시)이 발화시와 일치함.

*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한다.

중대장이 실망 함 (사건시) = "중대장 실망한다." (발화시)

→ 중대장이 실망하는 시점(사건시)이 발화시와 일치함.



① 선어말 어미를 통한 현재 시제 실현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ㄴ-/-는-'이 있어. '뜯다(뜨- + -ㄴ- + -다)', '먹는다(먹- + -는 + -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인 예시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동사와만 결합하는데, 형용사는 굳이 선어말 어미가 붙지 않아도 현재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동사	선어말 어미 '-ㄴ-/-는-'	(예) 호빵맨 난다. / 세균맨 죽는다.
	형용사	선어말 어미 X 형용사 자체로 현재 시제	(예) 철수는 귀엽다. / 꽃이 예쁘다.

② 관형사형 어미를 통한 현재 시제 실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와 결합하는 '-는'과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으)ㄴ'이 있어. '-(으)ㄴ'은 동사와 결합할 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니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를 하나하나 붙여 보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찾는 과정을 거쳐보는 게 좋아.

동사 '먹다'가 '빵'을 수식하도록 '먹-'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줘야겠어.

→ '먹은', '먹던', '먹는', '먹을'처럼 다양한 어미가 붙을 수 있네.

→ 이 중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뭐가 있을까?

☞ '-는'이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동사	관형사형 어미 '-는'	(예) 책을 읽는다.
	형용사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 예쁜 꽃이다. / 빨간 꽃이다.

③ 시간 부사어를 통한 현재 시제 실현

'지금', '오늘', '요즘' 등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야.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쓰인다면, 당연히 현재 시제겠지?

지금 <철수의 이발 일지>가 상영된다.

미래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사건시)이 말하는 시점(발화시)보다 뒤에 일어나는 시제를 말해. 쉽게 말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 미래 시제인 거야.

발화시(말하는 시점)

사건시(사건이 일어난 시점)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후행한다!

= 사건시 < 발화시

미래 시제의 예시

* 서울대 학생이 되리라.

“서울대 학생이 되리라.” (발화시)

서울대 학생이 됨 (사건시)

→ 서울대 학생이 되는 시점(사건시)이 발화시보다 후행함(나중임).

*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다.” (발화시)

비가 내림 (사건시)

→ 비가 내리는 시점(사건시)이 발화시보다 후행함(나중임).

① 선어말 어미를 통한 미래 시제 실현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겠-’, ‘-(으)리-’가 있어. ‘가~~겠~~다(가 + ~~겠~~ + -다)’, ‘가~~리~~라(가 + ~~리~~ + -라)’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인 예시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	(예) 비가 내리 겠 다.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으)리-’	(예) 의사가 되 리 라.

도약 Point

‘-겠-’의 다양한 의미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 가령 ‘어제 많이 추웠~~겠~~구나.’는 ‘-겠-’이 사용되었지만 미래 시제가 아니야.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지. ‘-겠-’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겠-’이 사용되었다고 미래 시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겠-’이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

② 관형사형 어미를 통한 미래 시제 실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으)ㄹ’이 있어. 역시나 외우기보다는 예문을 통해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끌어내 보고, 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아.

동사 ‘먹다’가 ‘빵’을 수식하도록 ‘먹-’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줘야겠어.

→ ‘먹은’, ‘먹던’, ‘먹는’, ‘먹을’처럼 다양한 어미가 붙을 수 있네.

→ 이 중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뭐가 있을까?

☞ ‘**을**’이다!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으)ㄹ’	(예) 내가 먹을 거야. / 네 미래는 밝을 거야.
------------------	----------------	--

③ 시간 부사어를 통한 미래 시제 실현

‘내일’, ‘내년’ 등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야.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쓰인다면, 당연히 미래 시제겠지?

동작상

동작상은 **발화시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구분돼. 진행상은 영문법의 -ing를 떠올리면 되고, 완료상은 p.p를 생각하면 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상**, 이미 끝나서 **완료되었으면 완료상**이야. 보통 보조 용언 일부로 동작상을 표현하지만, 연결 어미를 통해서 동작상이 드러날 때도 있어.

진행상과 완료상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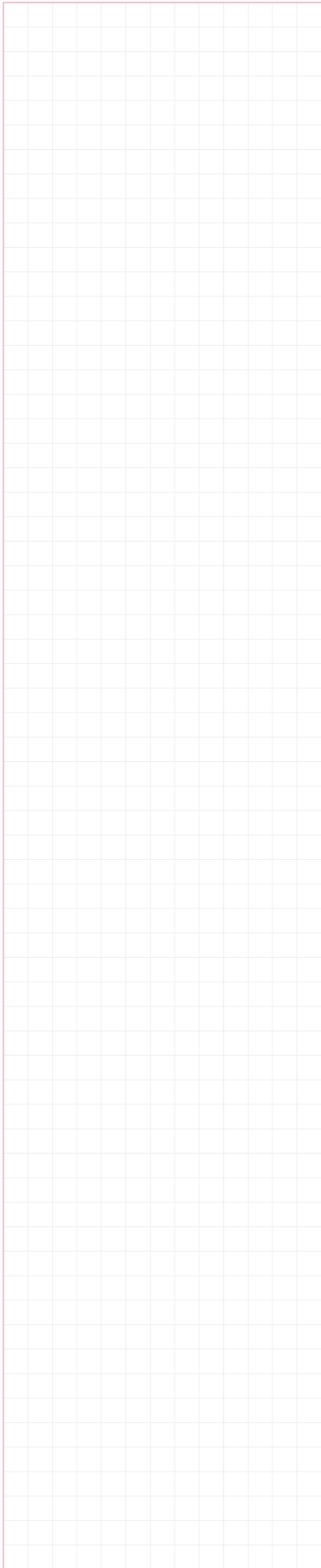
준영이가 녹두전을 만들고 있다. (진행상)



준영이가 녹두전을 만들어 버렸다. (완료상)



진행상	완료상
(예) 밥을 <u>먹고</u> 있다. / 빨래가 <u>말라</u> 간다. 서랍을 <u>정리</u> 하던 중에 편지를 발견했다.	(예) 밥을 <u>먹어</u> 버렸다. / 빨래가 <u>말라</u> 있다.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다.



도약 Point

'준영이가 앉아 있다'는 진행상인가?

보통 위 문장의 동작상이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물어보면 진행상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 그런데 진행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 중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 위 문장이 진행상이라면 준영이가 '앉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어야 해. 즉, 준영이가 스쿼트 자세로 매우 천천히 앉는 동작을 진행 중이어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위 문장은 준영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표현한 문장이잖아? 그러니 준영이가 앉는 동작은 이미 완료가 된 거야. 동작상은 '**동작'이 진행 중인지 완료되었는지로 결정되는 개념**이라, '준영이가 앉아 있다'는 완료상에 해당해.

다만 위 문장이 진행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동작은 이미 완료가 되었지만, 동작의 결과로 인한 상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야. 상태가 진행 중이더라도 동작이 완료되었다면 동작상은 '완료상'이 돼. 이 점은 주의해야 해!

적용 훈련

□ 다음 문장들에서 과거 시제를 실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 ① 어제, 집에 가스 점검원이 찾아왔다.
- ② 엄복동은 자전거를 훔쳤다.
- ③ 그 집 음식 참 잘하더라?

①

②

③

□ 다음 문장들에 쓰인 서술어의 품사를 밝히고, 현재 시제의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문장이 그 자체로 현재 시제이면 그대로 쓸 것).

- ① 그는 나에게 모욕감을 준다.
- ② 그렇게 다 가져가면 속이 후련하다.
- ③ 나는 내일 콘서트에 간다.
- ④ 형주가 끼블다.

①

②

③

④

□ 다음 문장의 시제를 밝히시오.

- ① 넌 들키면 죽었다.
- ② 난 아직 외롭다.
- ③ 풀꽃이 푸르다.
- ④ 지금 고향에는 눈이 오겠구나.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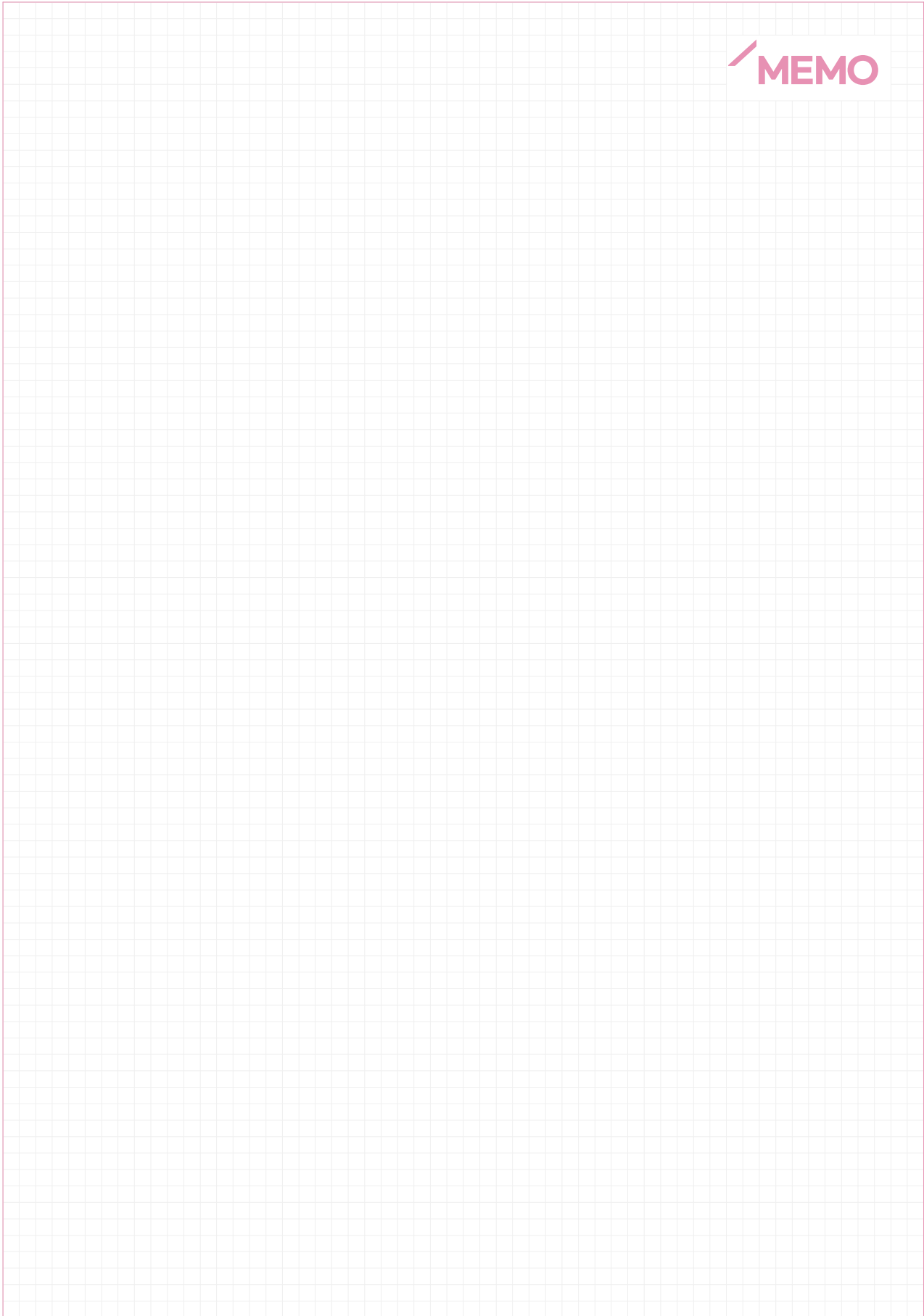
③

④

키워드로 정리 _ 시간 표현 CORE

시간 표현	사건시	시간 부사어
	발화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강한 단절/회상
		-았/었-
		관형사형 어미
		동사/형용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동사/형용사
	관형사형 어미	동사/형용사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
	관형사형 어미	
동작상	진행상	
	완료상	

MEMO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I like you.'를 번역할 때, 듣는 이가 친구라면 '난 널 좋아해.'라고 하겠지만, 할머니라면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사-'를 사용하며,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쓰기도 한다. 그 밖에 '계시다', '주무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 ㉠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하십시오체	예) 합니다, 합니까? 등
	하오체	예) 하오, 하오? 등
	하계체	예) 하네, 하는가? 등
	해라체	예) 한다, 하나? 등
비격식체	해요체	예) 해요, 해요? 등
	해	예) 해, 해? 등

격식체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자리나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모시다', '여쭙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35. 다음 문장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고1 2018년 9월 학평 11번)

- 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다.
- ② 교수님께서서는 책이 많으시다.
- ③ 어머니께서 음악회에 가셨다.
- ④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3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1 2018년 9월 학평 12번)

<보 기>

(복도에서 친구와 만난 상황)

성호: 지수야, ㉠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

지수: 지금 바빠서 ㉡ 선생님께 자료 드리기 어려운데, 네가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

성호: ㉢ 네가 선생님을 직접 뵈고,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수: 알았어.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간 상황)

선생님: 지수야, 이번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지? 발표 자료 가져왔니?

지수: 여기 있어요. ㉣ 열심히 준비했어요.

선생님: 그래, 준비한 대로 발표 잘 하렴.

(수업 중 발표 상황)

지수: ㉤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① ㉠: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② ㉡: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③ ㉢: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④ ㉣: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어요'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⑤ ㉤: 수업 중 발표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마치겠습니다'라고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군.

37. 다음은 높임 표현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4년 11월 학평 A 14번)

〈학습 활동〉

다음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보자.

우리말의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면 주체 높임,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됩니다.

질문: 제시된 문장에 실현된 높임 표현에 대해 탐구해 보자.

- ㉠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어요?
- ㉡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러 나가셨습니다.
- ㉢ 삼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 ① ㉠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 ② ㉡에서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③ ㉠과 ㉡에서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④ ㉠과 ㉢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 ⑤ ㉡과 ㉢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23년 9월 학평 14번)

〈학습 활동〉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며,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 ㄱ. 창밖에는 눈이 내린다.
- ㄴ. 곧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 ㄷ. 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다.
- ㄹ. 내가 만든 빵을 형이 맛있게 먹더라.

-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 ②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 ③ ㄴ과 ㄷ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④ ㄷ과 ㄹ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⑤ ㄱ, ㄴ, ㄹ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39.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A/B 14번)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학 생 :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일어난 지 못하겠니?
 - 아 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 A :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학생 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 니 : ㉣ 어쩍 이럴 수 있니?
 - 동 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다 |
| ③ | 나 | 라 |
| ④ | 다 | 나 |
| ⑤ | 다 | 라 |

40.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B 15번)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4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A 12번)

<보 기>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어제 뭐 했니?
B: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감기 걸렸더마?
B: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겼어.
- ④ ㉣ [A: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아주 나빴어.
- ⑤ ㉤ [A: 너 오늘도 바빠?
B: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잠어.

4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B 14번)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4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수능 A 13번)

<보 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나?
B: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44.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보 기>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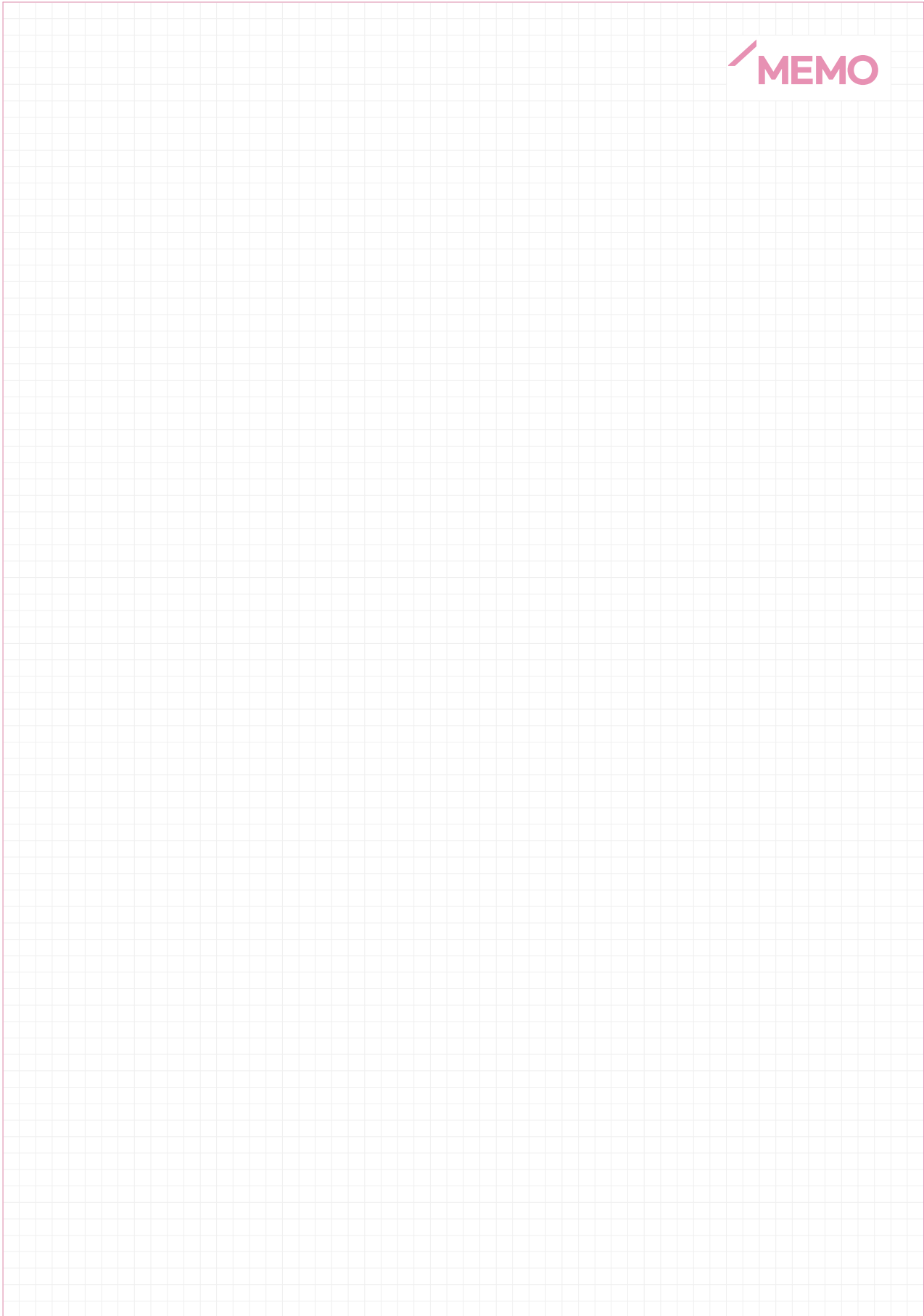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리-’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4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렵.”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오렵’의 ‘-렵’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MEMO



Theme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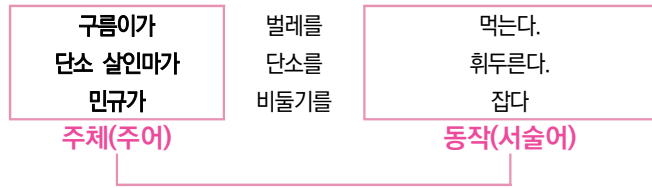
문법 요소 II _ 피동, 사동, 부정, 인용 표현 + 올바른 문장 쓰기

피동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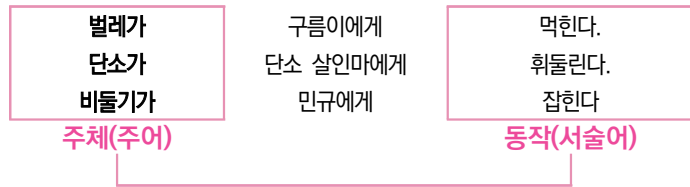
피	해자	☞ 해를 당한 사람
피	고인	☞ 고소를 당한 사람
피	의자	☞ 의심을 당하는 사람
피	살	☞ 죽임을 당함
피	사체	☞ 사진 찍힘을 당한 대상

‘피(被)’는 ‘당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위 예시들처럼 ‘피’가 들어간 말에는 모두 ‘당함’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그렇다면 ‘피동’은 무슨 뜻일까? ‘동’은 동작을 뜻하니 자연스럽게 ‘피동’은 ‘동작을 당함’이라는 의미가 돼.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피동’은 어떤 주체(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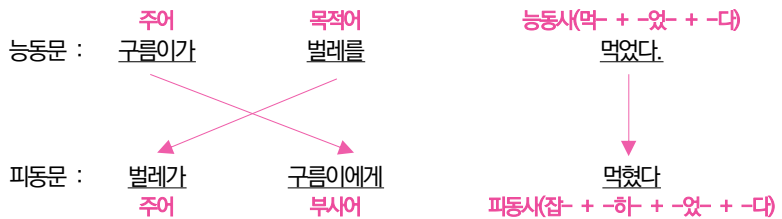
피동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는 **‘능동 표현’**이 있어. 능동은 주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주어)가 자기의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해. 동작을 당하면 피동, 동작을 제힘으로 하면 능동이 되는 거지. 피동은 크게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으로 나뉘어.



☞ 주체(주어)가 제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니 능동!



☞ 주체(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니 피동!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파생적 피동

문법에서 말하는 ‘파생’은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과정**을 말해.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면, 파생을 통해 피동을 실현한다는 것인데, 파생은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일을 뜻하니 **파생적 피동은 접사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서 피동을 실현하는 게 되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파생적 피동은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피동사’를 만들어서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이야. 피동사는 능동의 의미를 지니는 능동사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져.

이것 말고도 피동 접미사 **‘-되다’**가 서술성을 가진 명사에 붙어서 피동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접사가 붙어 피동사가 생겨난 것이니 파생적 피동으로 볼 수 있어.

능동사		피동 접사		피동사
쓰다	+	-이-	↳	쓰이다
먹다	+	-히-	↳	먹히다
휘두르다	+	-리-	↳	휘둘리다
쫓다	+	-기-	↳	쫓기다
형성	+	-되다	↳	형성되다

↳ 파생적 피동!

도약 Point

Q. 선생님, ‘-받다’, ‘-당하다’가 붙어서 실현되는 피동은 어떤가요? 이 방법도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니 파생적 피동으로 볼 수 있나요?

A. 해당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어. 실제로 ‘-받다’, ‘-당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파생적 피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학교 문법에서는 어휘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여 ‘어휘적 피동’이라 말해. 다만 학교 선생님이 따라서 이를 파생적 피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니, 내신 준비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자!

통사적 피동

통사적 피동은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지 않고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이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서술어에 **‘-아/어지다’나 ‘-게 되다’**가 붙어 실현되는 게 통사적 피동이야.

능동사		피동 표현
풀었다	+	-어지다
가다	+	-게 되다

도약 Point

Q. 선생님! '풀어지다'도 새로운 단어이니 '-어지다'는 피동 접사이고, '-아/어지다'가 붙어서 실현된 피동도 파생적 피동 아닌가요?

A. 훌륭한 질문이야. '풀어지다'가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어지다'는 본래 '-아/어 지다'의 보조 용언의 구성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접미사처럼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학교 문법에서는 '-아/어지다'가 붙어 피동이 실현되는 것을 분명 통사적 피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따라서 '-아/어지다'가 붙어서 실현된 피동이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

피동 주의 사항

피동문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야. 가령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이 있다면, 그에 대응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능동문도 있는 거지. 하지만 대응하는 능동문 or 피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 가령 '구름이 걷혔다.'라는 피동문에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어. 또, '썩을 열심히 뜯었다.'라는 능동문은 마땅히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지.

또 잘못된 피동 표현 중에 이중 피동이라는 것도 있어. 피동 표현은 위에서 말한 요소 중 하나만 가지고 와도 실현이 돼. 피동사 '먹히다'는 '먹다'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경우고, '요구되다'는 '요구'라는 어근에 '-되다'라는 피동 접사가 붙어서 피동이 된 케이스야. 그런데 **피동 접사에 '-아/어지다'까지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가령 '쓰여지다'는 피동 접사 '-이-'에 '-어지다'까지 결합했지? 피동 접사 하나만 사용해도 피동사가 되는데, 불필요하게 '-어지다'까지 사용해버린 거야. 이걸 **이중 피동**이라고 하고, 문법상으로는 **잘못된 표현**으로 봐.

[이중 피동의 예시]

준영이는 사랑꾼이라고 **불려진다**.

→ '불다'에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결합함.

잔에 술이 **담겨져** 있다.

→ '담다'에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결합함.

단소가 단소 살인마에게 **휘둘러진다**.

→ '휘두르다'에 피동 접사 '-리-'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결합함.

추가 읽기 자료

신문이나 방송은 국민에게 매일의 '국어 교과서'다. 그렇기에 보도 문장은 어법에 맞는 피동형이라도 가능한 삼가야 하는데, 현실은 어법에 맞지 않는 피동형 표현투성이다. '-하다'를 '-되다'로, 피동형인 표현을 다시 '-아/-어지다'를 붙여 이중 피동형으로 쓰는 습관이 대표적인데, 모두 영어, 일본어 문장의 직역 투다. 능동형 중심의 우리말을 피동형 중심으로 바꾸는 데에 언론이 앞장을 서고 있는 셈이다.

피동형 외에도 객관 보도를 해치는 상습적 표현이 간접 인용문이다. '-이라고 알려졌다.', '-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지 주목된다.' 따위로 서술하는 것이 간접 인용문이다. 간접 인용문을 받아 서술하는 표현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 피동형이 많다. "OOO이 '~'라고 말했다." 등으로 써야 할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문장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모호성이 많은 것이요, 동시에 글의 책임감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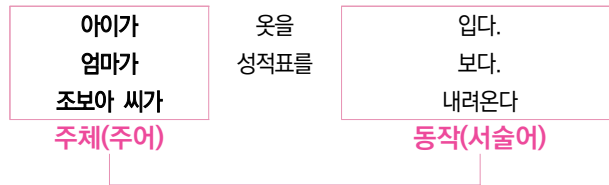
김지형, 『피동형 기자들』에서

사동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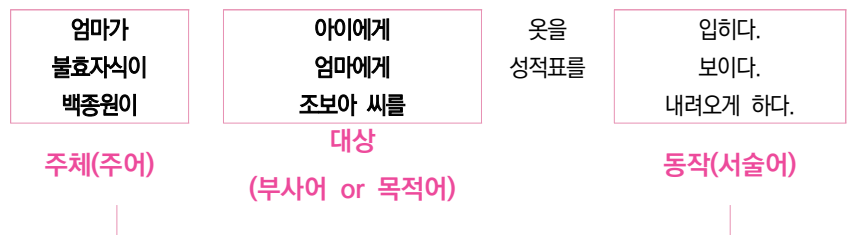
사	자	☞ 심부름하는(부리는) 사람
사	용	☞ 물건을 씌(부림)
사	주	☞ 좋지 않은 일을 시킴
사	역	☞ 남을 부려 일을 시킴

‘사(使)’는 ‘시키다’ 혹은 ‘부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위 예시들처럼 ‘사’가 들어간 말에는 모두 ‘시키다’ 혹은 ‘부리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그렇다면 ‘사동’은? ‘동’은 동작이니 ‘사동’은 ‘동작을 시킴(하도록 함)’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사동’은 어떤 주체(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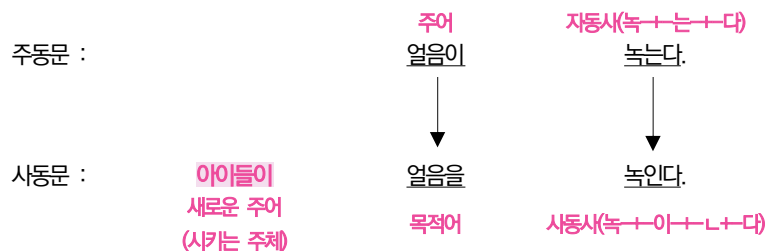
사동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는 **‘주동 표현’**이 있어. 주동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으로 사동과는 분명히 달라. 동작을 남이 하도록 시키면 사동, 동작을 직접 하면 주동이 되는 거지. 사동은 피동과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뉘어.



☞ 주체(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이니 주동!



☞ 주체(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이니 사동!



⇒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목적어 없이 쓸 수 있는 동사), 형용사일 때는 주동문의 주어 사동문의 목적어로 쓰인다.

파생적 사동

‘파생’의 정의는 파생적 파동에서 이미 설명했지? **파생적 사동은 접사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서 사동을 실현**하는 방법이야. 즉,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사동 접사를 붙여서 ‘사동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동을 실현하는 방법이야. 사동사는 주동의 의미를 지니는 주동사 or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어서 만들어져.

이것 말고도 서술성을 가진 명사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서 사동을 실현하는 방법도 파생적 사동으로 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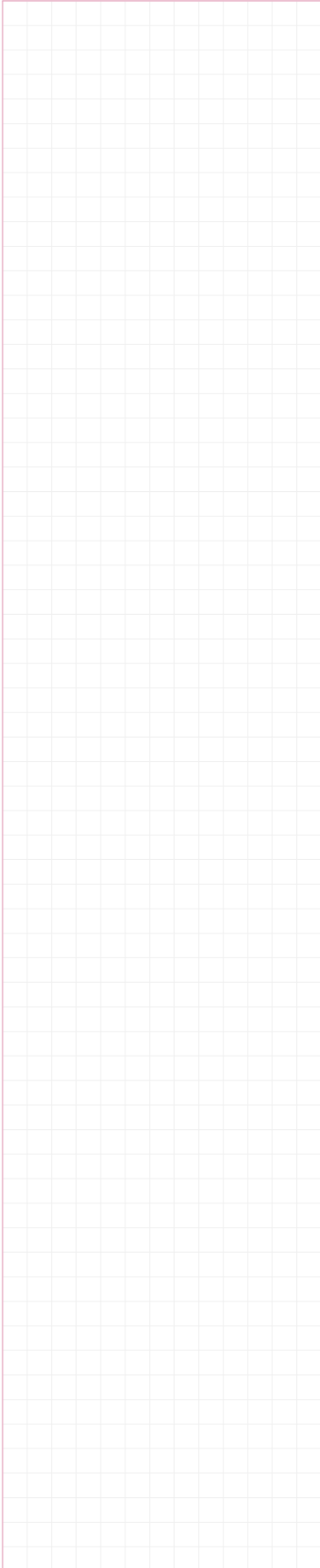
주동사 or 형용사		사동 접사		사동사
보다	+	-이-	☞	보이다
입다	+	-히-	☞	입히다
날다	+	-리-	☞	날리다
웃다	+	-기-	☞	웃기다
깨다	+	-우-	☞	깨우다
달다	+	-구-	☞	달구다
낮다	+	-추-	☞	낮추다
기절(서술성 가진 명사)	+	-시키다	☞	기절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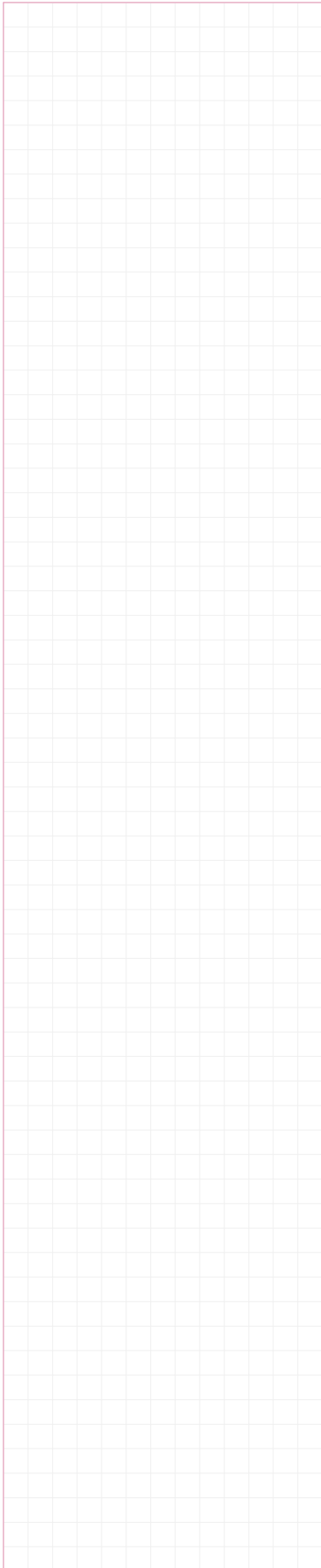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 **파생적 사동!**

도약 Point

Q. 선생님, 형용사가 어떻게 사동사로 변할 수 있습니까?. 사동사는 ‘동작’과 관련한 것인데 형용사가 사동사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A. 사동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형용사를 가지고도 사동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야. 실제로 형용사 ‘낮다’에 사동 접사 ‘-추-’가 붙으면 사동사인 ‘낮추다’가 만들어지지? 하지만, 사동사에 대응하는 형용사를 주동사라고 부를 수는 없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사동사와 대응되는 형용사가 쓰인 ‘문장’은 ‘주동문’이라고 불러. 비록 주동사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사동문에 대응하는 문장이라고 보기 때문이야.





도약 Point

※ 소개하다? 소개시키다?

‘남자를 소개해준다.’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중 어떤 말이 맞을까? 접미사 ‘-하다’와 ‘-시키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 가령 ‘주차하다’와 ‘주차시키다’는 의미가 많이 달라. ‘주차하다’는 어떤 주체가 직접 주차를 한다는 의미이지만, ‘주차시키다’는 주체가 다른 이에게 주차를 하도록 시키는 걸 의미하니까! 마찬가지로 ‘소개하다’와 ‘소개시키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 ‘소개하다’는 주어가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걸 의미하지만, 소개시키다는 주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도록 시키는 걸 의미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은 어떤 남자를 데려와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계를 맺어준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지?

‘-하다’가 붙는 말에 ‘-시키다’를 붙이면 말의 의미가 정말 어색해지거나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통사적 사동

통사적 사동은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지 않고 사동을 실현하는 방법이야. 통사적 사동은 서술어에 **‘-게 하다’**가 붙어 실현돼.

주동사 or 형용사		사동 표현		
플었다	+	-게 하다	☞	플게 하다
가다	+	-게 하다	☞	가게 하다

직접 사동 vs 간접 사동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때 사동문의 주어가 직접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사동**, 남에게 행위를 하도록 할 뿐, 사동문의 주어가 직접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간접 사동**이라고 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직접’ 입힘. (직접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 엄마가 옷을 직접 입히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함. (간접 사동)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모두 사동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하지만 위의 문장은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의미이고, 아래 문장은 엄마가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했다는 의미이니,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때 위 문장을 직접 사동, 아래 문장을 간접 사동이라고 해.

보통 파생적 사동은 직접 사동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접 사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 하지만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만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 이야. 이것도 예를 들어 확인해 볼까?

정연이가 친구에게 술을 먹였다. (파생적 사동)

- ☞ 정연이가 친구의 입에 술을 직접 넣어서 먹였다. (직접 사동)
- ☞ 정연이가 친구가 스스로 술을 먹도록 시켰다. (간접 사동)

정연이가 친구에게 술을 먹게 했다. (통사적 사동)

- ☞ 정연이가 친구가 스스로 술을 먹도록 시켰다. (간접 사동)

도약 Point

Q. 선생님 이중 피동은 있는데 이중 사동은 없나요?

A. 좋은 질문이야. 사동 접사가 붙고 다시 통사적 사동이 실현되는 이중 사동이 분명 존재해. 하지만 이중 피동과 달리 이중 사동은 문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가령 “나는 내 자식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먹이게 해 주었다”라는 문장은 사동 접사 ‘-이-’와 통사적 사동을 실현하는 ‘-게 하다’의 구성이 동시에 확인이 돼. 하지만 이는 아이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먹이고, ‘나’는 아이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의미로, 문장 자체에 오류는 발견되지 않아.

도약 Point

Q. 선생님 ‘태우다’와 ‘재우다’는 사동사인가요?

‘태우다’는 ‘타다’라는 동사에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하고 다시 ‘-우-’가 결합한 형태의 사동사야. 선생님 이중 사동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우-’가 사동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어. 즉, 사전에 실려 있는 사동 접사가 붙은 경우야.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태우다’를 이중 사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사동 접사 ‘-이-’와 ‘-우-’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따르면 ‘-이우-’가 붙은 사동사는 이중 피동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 일단 학교 문법의 견해를 따르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하나의 접미사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적용 훈련

□ 다음 밑줄 친 문장이 피동문인지 능동문인지 적고, 피동문이라면 피동을 실현한 방법을 밝히시오.

- ① 연이 난다.
- ② 아이가 엄마에게 안겼다.
- ③ 이 물건은 오래전에 쓰였다.
- ④ 비둘기는 녹두전을 먹었다.

①

②

③

④

□ 주어를 적절하게 추가하여 주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꾸시오.

- ① 똥이가 임무를 맡았다.
- ② 물이 병에 가득 찼다.

①

②

□ 다음 표현에 오류가 있는지 밝히고 오류가 있다면 올바르게 고치시오.

- ① 징징이는 직장에서 잘렸다.
- ② 그는 이곳저곳을 해매었다.
- ③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 ④ 잊혀진 계절
- ⑤ 자취방을 나올 때, 깜빡하고 방을 환기시키지 않았다.
- ⑥ 오늘 처음 입은 새 옷이 못에 걸려 찢겨졌다.
- ⑦ 네가 형이니까 직접 동생 교육시켜라.

키워드로 정리 _ 피동, 사동 표현 CORE

피동 표현

파생적 피동

이중 피동

통사적 피동

사동 표현

파생적 사동

이중 사동

통사적 사동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못' 부정

'못' 부정은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지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 표현을 말해. '못' 부정은 크게 능력 부정과 상황에 의한 부정으로 나뉘어. 능력 부정은 말 그대로 주체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상황에 의한 부정은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불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명수는 숙제를 못 한다. (능력 부정)

☞ 명수는 아는 것이 없어 숙제를 못 한다.

(능력이 부족해서 숙제를 못 함.)

명수는 숙제를 하지 못 한다. (상황에 의한 부정)

☞ 명수는 오늘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못했다.

(다른 원인에 의해 숙제를 못 함.)

도약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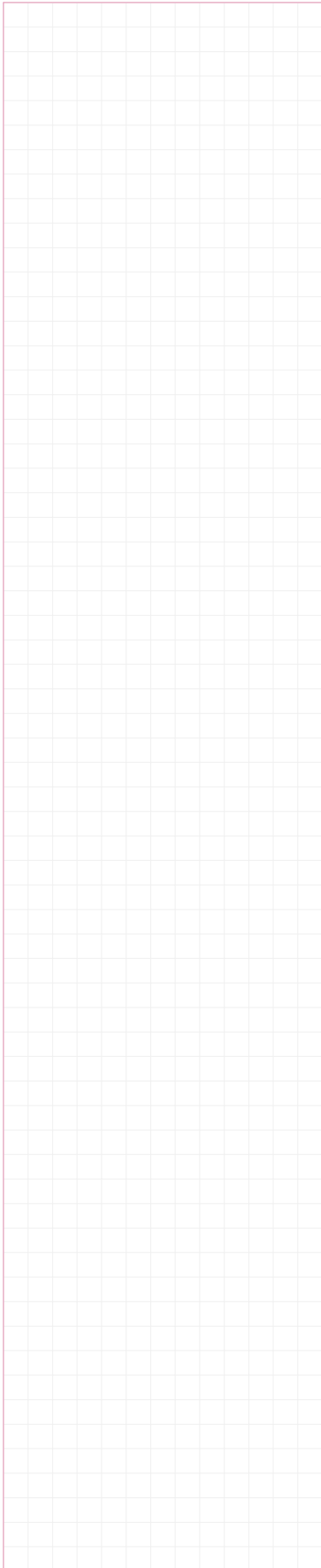
부정 표현의 중의성

부정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정 표현이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가령에 '명수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에서 '-지 않았다'가 부정하는 것이 숙제라면 "명수가 하지 않은 것은 '숙제'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명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명수'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이처럼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어. 만약 부정문의 중의적 의미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거나 어순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어.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기 말이나 글에 끌어서 쓰는 표현을 말해.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돼. 직접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끌어서 쓰는 걸 말해. 가령 <선생님이 "철수 데려와"라고 하셨다.>는 선생님의 **말을 큰따옴표를 사용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인용**한 건데, 이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줘야 하고, 인용절 다음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해.

반면 **간접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의 형식을 조금 바꿔서 전달하는 거야(내용을 뒤집는다는 소리가 아님). 가령 <철수야, 선생님이 너 오라고 하셨어.>는 철수를 데려오라는 선생님의 말을 조금 변형해서 전달했잖아? 선생님이 "너 오라"라고 말했을 리는 없을 테니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인용 과정에서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면 그걸 **간접 인용**이라고 해.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인용절 다음에는 조사 '라고'가 아니라 '고'를 사용해.



선생님이 “집에 가자”라고 하셨어.

☞ 직접 인용 / “”(큰따옴표) 사용 / 조사 ‘라고’ 사용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하셨어.

☞ 간접 인용 / 조사 ‘고’ 사용

도약 Point

Q. 선생님, 간접 인용에는 조사 ‘고’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철수야, 선생님이 너 오라고 하셨어.”에는 ‘라고’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아마가 됩니다.

A. 안타깝게도 위 예시에는 ‘라고’가 사용되지 않았어. ‘선생님이 너 오라’는 명령문에 조사 ‘고’가 붙은 거지. 명령문을 인용할 때는 ‘하라고’, ‘먹으라고’처럼 ‘라고’의 형태가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라고’는 아니야. 조심해야 해!

교과서 플러스

실제 인용 표현의 사용 양상

한 학생은 보고서에서 “나한테 도움 된다든가 흥미가 있는 내용의 기사만 보고, 기사를 클릭하기 전에 댓글을 먼저 본다. 댓글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써 놓거나 자기 생각을 썼으니 이걸 먼저 보고 ‘아, 불만하구나.’ 생각이 들면 기사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은 ‘베스트 댓글’을 뉴스 판단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근거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고교생의 경우 댓글을 쓴 사람의 의견과 기자의 의견에 거의 동등한 가치를 두고 있었다”며 “이는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지만, 댓글을 쓴 개인을 정보의 생산 주체이자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기사문이나 보도문에서는 직접 인용의 격 조사 ‘라고’와 간접 인용의 격 조사 ‘고’를 구별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인용에서도 ‘고’를 쓰는 경향이 있다.

적용 훈련

□ 다음 문장에 쓰인 부정 표현의 종류를 적으시오.

- ① 민지는 얼굴이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간다.
- ② 병건이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 ③ 욕하지 마라.
- ④ 안 때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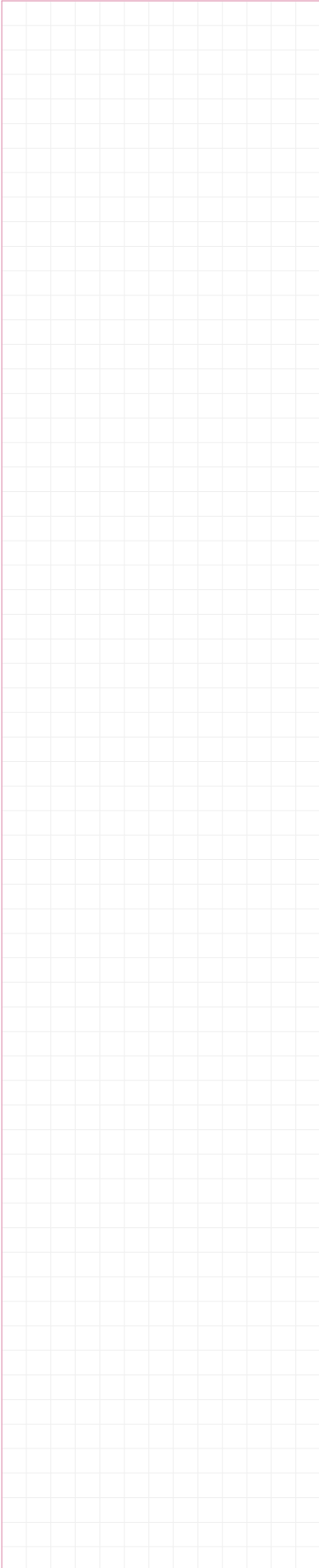
④

□ 다음 문장들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찾아 밑줄을 긋고, 이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시오.

- ① 철수가 엇그제 “나는 글피 한강에서 아빠랑 고기를 잡을 거야.”라고 했다. (철수는 나의 외사촌 동생이다.)
- ② 명수가 “내가 범인ियो.”라고 했다.

□ 다음 표현에 오류가 있는지 밝히고 오류가 있다면 올바르게 고치시오.

- ① 징징이는 직장에서 잘렸다.
- ② 그는 이곳저곳을 헤매었다.
- ③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 ④ 잊혀진 계절
- ⑤ 자취방을 나올 때, 깜빡하고 방을 환기시키지 않았다.
- ⑥ 오늘 처음 입은 새 옷이 못에 걸려 찢겨졌다.
- ⑦ 네가 형이니까 직접 동생 교육시켜라.



필수적 문장 성분 갖추기

올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도록 해야 해. 즉, 모든 문장이 요구하는 주성분인 주어와 서술어,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주성분들이 더러 생략될 때도 있어. 가령 철수와 민수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철수가 민수에게 “민수는 밥을 먹었니?”라고 묻는다면 다소 어색하게 들려. 왜냐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민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이처럼 문맥상으로 해당 성분이 자연스럽게 유추될 경우 주성분이더라도 더러 생략되곤 해.

하지만 생략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주성분들이 생략된다면 곤란하겠지? 이 경우에는 잘못된 문장이 만들어질 거야. 가령 “바람과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에는 오류가 있는데, 비는 내리는 것이 맞지만 바람은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즉, 바람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거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필수 성분들을 적절하게 채워 넣어줘야 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는 식으로 말이야

	잘못된 문장과 고친 문장	잘못된 이유
주어의 부적절한 생략	문학은 언어 예술이며, 문학을 통해 예술 감각을 키울 수 있다. → 문학은 언어 예술이며,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은 문학을 통해 예술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예술 감각을 키우는 '주체(주어)'가 드러나지 않음.
목적어의 부적절한 생략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지배한다.'가 요구하는 목적어가 갖추어지지 않음.
필수적 부사어의 부적절한 생략	아버지는 내 손가락이 닳았다고 하신다. → 아버지는 내 손가락이 어머니와 닳았다고 하신다.	'닳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갖추어지지 않음.
보어의 부적절한 생략	철수는 되었다. → 철수는 세균맨이 되었다.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가 갖추어지지 않음.
서술어의 부적절한 생략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부른다. → 아이들이 춤을 추고 , 노래를 부른다.	'춤'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갖추어지지 않음.

문장 성분의 호응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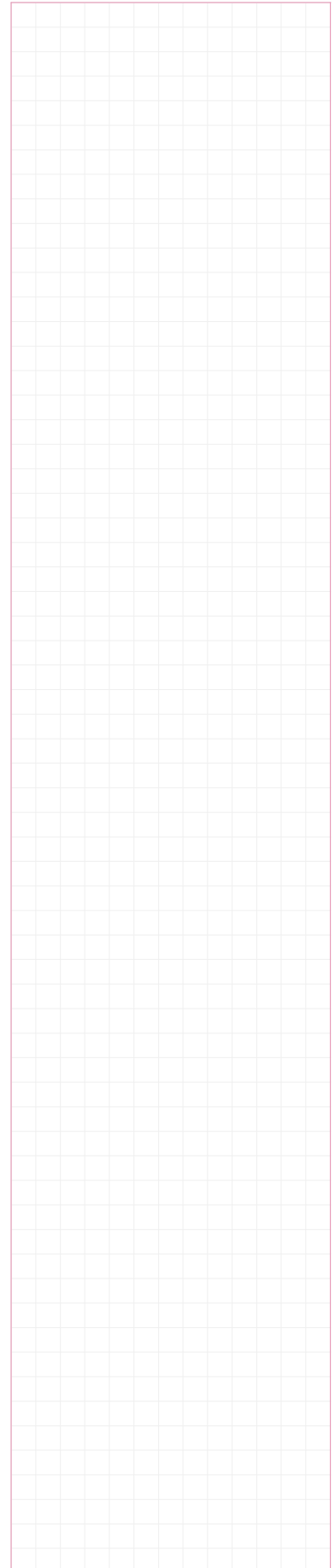
문장이 짧을 때는 오류가 잘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이곳저곳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돼.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테니 예시를 통해 설명해 줄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자.

위 문장은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비문(非文)이야. 위 문장이 왜 비문인지는 주어와 서술어를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위 문장의 주어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야. 서술어는 '효도하자'이고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를 직접 결합해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효도하자."인데 굉장히 어색하지? 주어와 서술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야.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 외에도,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호응이 맞지 않는 성분	잘못된 문장과 고친 문장	잘못된 이유
주어-서술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똑바로 살아라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똑바로 살라는 것이다 .	주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과 서술어 '살아라'가 호응이 맞지 않음.
수식어 - 피수식어	오늘은 어김없이 날이 늦었는데 동생은 외출했다. → 오늘은 날이 늦었는데 어김없이 동생은 외출했다.	'어김없이'는 '외출했다'를 수식하는 말이지만 피수식어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수식 관계가 모호해짐.
부사어 - 서술어	너는 절대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너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절대'는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와 어울릴 수 없다.



중의성 제거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 가령 “철수가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문장은 ‘철수가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철수가 이미 신발을 신은 상태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문장의 의미가 여럿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을 사용해야 해. 그러면 아래 표를 통해 중의적 문장의 예시를 확인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중의적 문장	중의성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쁜 철수의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가 예쁘다. · 철수의 머리가 예쁘다.
비교 구문의 중의성 (보다)	철수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가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 · 철수가 엄마와 아빠 중에서 아빠를 더 좋아한다.
접속 표현에 의한 중의성 (와/과)	한결이와 현웅이는 결혼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결이도 결혼하고 현웅이도 결혼했다. · 한결이가 현웅이와 결혼했다.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	부기의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기가 그린 그림 · 부기를 그린 그림 · 부기가 소유한 그림
주어부 미확정에 의한 중의성	철수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 철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부정 표현에 의한 중의성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 사람이 오긴 했지만, 전부 다 오지는 않았다.
사동문에 의한 중의성 (직접/간접)	엄마가 아들을 유모차에 태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아들을 들어서 유모차에 태워줬다. (직접 사동) · 엄마가 아들에게 하여금 유모차에 타게 했다. (간접 사동)
동작의 완료나 진행에 따른 중의성 (-고 있다)	형직이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직이가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이다. · 형직이가 넥타이를 맨 채로 있다.
단어의 중의성	형직이가 배를 보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직이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았다. · 형직이가 누군가의 복부를 보았다.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위의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 쪽 읽어보면서 해당 문장이 중의적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돼. 대신 자연스럽게 암기될 만큼 자주 확인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자.

중의성 제거

문장의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야.

1. 삽표 사용

예쁜 철수의 머리 → 예쁜 철수의 머리(철수가 예쁘다) / 예쁜, 철수의 머리(철수의 머리가 예쁘다)

2. 어순 이동

예쁜 철수의 머리 → 철수의 예쁜 머리(철수의 머리가 예쁘다)

3. 자세히 풀어 씀

재석이와 명수는 결혼했다. → 재석이와 명수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4. 보조사 '은/는, 도, 만' 사용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 사람들이 다는 모이지 않았다.

5. 문장을 읽을 때 휴지나 강세를 둠

중복 성분 제거

문장 성분이나 뜻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는 어려워. 이런 경우엔 반복되는 문장 성분이나 단어 중 하나를 문장에서 빼줘야 해.

문장 성분의 중복

- 형직이의 **장점**은 바퀴벌레를 잘 잡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 중복

- 이미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다
- **삭제**해서 **빼**다.
- **따뜻**한 **온수**
- **역전** **앞**

적용 훈련

□ 다음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이유를 밝히고 고쳐 쓰시오.

- ① 명희가 나이를 먹으면 된다.
- ② 우리는 때때로 남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 ③ 철수의 특징은 착하다.
- ④ 약속은 절대 지켜야 한다.
- ⑤ 7호선 취객의 다른 이름은 단소 살인마이며, 사람들에게 단소를 휘둘렀다.
- ⑥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 ⑦ 잘생긴 철수의 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키워드로 정리 _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정확한 문장 쓰기 CORE



46. <보기>에서 문장을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2 2013년 6월 학평 B형 13번)

<보 기>

문장의 기본 구조 안에서 호응하는 문장 성분끼리 잘 어울려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예1)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 ㉠

(예2)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 중 많이 차지한다.
→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로 많이 차지한다. …… ㉡

(예3)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일을 차분하게 해라.
→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을 차분하게 해라. …… ㉢

(예4) 그는 비록 몸은 고단하도록 마음만은 행복해 보였다.
→ 그는 비록 몸은 고단하면서 마음만은 행복해 보였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고1 2015년 3월 학평 14번)

<보 기>

“나는 멋진 오빠의 친구를 보았다.”는 수식하는 말의 수식 범위가 불분명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즉, ‘오빠’가 멋진 것인지, ‘오빠의 친구’가 멋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①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가 있다.
② 형은 나보다 등산을 좋아한다.
③ 할머니께서 신발을 신고 계신다.
④ 나와 그녀는 올해 결혼을 하였다.
⑤ 그는 나에게 사과와 꿀 두 개를 주었다.

48.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고1 2016년 9월 학평 15번)

<보 기>

㉠처럼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중의적 표현이라 하고, 이런 문장들을 ‘중의문’이라고 한다. 문장이 중의성을 띠게 되면 정확한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므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 ① 그는 그녀와 작년에 결혼을 했다.
② 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
③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④ 그녀는 사과 한 개와 배 두 개를 샀다.
⑤ 그는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한다.

49.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6년 6월 학평 15번)

<보 기>

㉠ 경준이는 손이 크다.
㉡ 효정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
㉢ 상호는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 어머니께서 나에게 사과와 꿀 두 개를 주셨다.
㉤ 지훈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를 맞이했다.

- ① ㉠은 ‘손이 크다’의 의미가 신체의 손이 큰지 씬씀이가 큰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② ㉡은 ‘신고 있다’의 의미가 구두를 신는 중인지 구두를 신은 상태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③ ㉢은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어머니’인지 ‘그녀’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④ ㉣은 ‘사과’와 ‘꿀’의 결합에 따라 ‘사과’와 ‘꿀’이 각각 몇 개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⑤ ㉤은 ‘웃으면서’의 주체가 ‘지훈이’인지 ‘지훈이와 소민이’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50~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2 2019 6월 학력평가

하나의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 ~ (3)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 (1) ㄱ. 손이 크다.
 ㄴ. 차를 사다.
- (2) ㄱ. 예쁜 민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ㄴ. 나는 철수와 영희를 달랬다.
 ㄷ.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
- (3) ㄱ.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ㄴ. 포수 세 명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첫째, '어휘적 중의성'은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의 특성에 따라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를 통해서 실현된다. (1ㄱ)은 '손'이 '신체 부위'나 '쓰임새'와 같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의어'에 따른 중의성에 해당한다. (1ㄴ)의 '차'는 '엔진이 달린 탈것[車]'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녹차나 홍차와 같이 '마시는 음료[茶]'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1ㄴ)은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구조적 중의성'은 어떤 문장이 둘 이상의 통사적 관계를 가진 문장 구조로 분석되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수식 관계', '접속 구문', '비교 구문'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2ㄱ)은 '수식 관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로, '예쁜'이 '민지'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2ㄴ)은 '접속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내가 '철수와 영희' 둘 다 달랬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달랬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2ㄷ)은 '비교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행위의 주체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행위의 대상인 '어머니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셋째, '작용역*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작용역이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 표현', '수량 표현'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3ㄱ)은 '부정 표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않았다'가 부정하는 것이 '나'인지, '어제'인지, '그녀'인지, '만나다'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 되었다. (3ㄴ)은 '수량 표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즉, 포수 세 명

이 합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포수 세 명 각자가 사슴 한 마리씩을 잡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의적 표현은 광고나 유머 등에서 표현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의적 표현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의성을 띠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표를 사용하거나, 어순, 단어, 조사 등을 바꾸거나, 단어나 조사를 추가하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 작용역: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5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고2 2019년 6월 학평 11번)

- ① 표현 의도에 따라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②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은 한자어 표기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수식어가 하나의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한다.
- ④ 수량 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둘 이상이 되면 작용역의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비교 구문에서 특정 부분이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

51.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9년 6월 학평 12번)

<보 기>

중의적인 문장	해소 방법	고친 문장
길이 없다.	단어 바꾸기	㉠
착한 주희의 동생을 만났다.	어순 바꾸기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삽표의 사용	㉢
회원들이 다 오지 않았다.	조사의 추가	㉣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단어의 추가	㉤

- ① ㉠: 도로가 없다.
- ② ㉡: 주희의 착한 동생을 만났다.
- ③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 ④ ㉣: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⑤ ㉤: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52. 다음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노트이다. <과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5년 11월 학평 13번)

<오늘 배운 내용>

- 다음의 경우 잘못된 문장이 된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
 -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과제>

- 다음 문장이 올바르게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장들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보세요.
 - ㄱ. 철수는 노래하는 것을 전혀 싫어한다.
 - ㄴ. 이곳의 풍부한 일조량은 키우기에 적합하다.
 - ㄷ. 만약 민수가 아파서 너는 그를 돌봐줘야 한다.
 - ㄹ. 인간은 운명을 개척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ㅁ. (아버지가 용감한 경우)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했다.

<과제 수행>

- ① ㄱ의 '전혀'는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전혀'를 '매우'로 바꿔야 한다.
- ② ㄴ에는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키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작물'과 같은 말을 넣어야 한다.
- ③ ㄷ의 '아파서'는 '만약'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아프니'로 바꿔야 한다.
- ④ ㄹ에는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순응하기도' 앞에 '운명에'를 추가해야 한다.
- ⑤ ㅁ은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되므로 '용감한'을 '아버지는'의 앞으로 옮겨야 한다.

53. <보기>에서 잘못된 문장을 고쳐 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5년 6월 학평 15번)

<보 기>

- **중의적 문장을 사용한 경우**
 예)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
 →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집에서 보았다.
 ㉠
- **의미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예)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 그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
- **사동 표현이 잘못된 경우**
 예)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줄게. ㉢
-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경우**
 예) 내일은 구름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 내일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
- **높임 표현이 잘못된 경우**
 예) 손님께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 손님께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54.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4년 11월 학평 B형 13번)

<보 기>

언어 표현은 문장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장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생략하였거나, ㉡ 호응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 문장 안에서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수정 전 문장	수정 이유	수정 후 문장
우물 속에 빠진 여우가 골똥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 ㉠ →	㉠
어머니는 종종 동그랗고 하얀 내 얼굴이 닳았다고 하셨다.	→ ㉡ →	㉡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 →	㉢
비록 네가 나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 ㉣ →	㉣
우리가 정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 ㉤ →	㉤

- ① ㉠: 우물 속에 빠진 여우가 빠져나갈 방법을 골똥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 ② ㉡: 어머니는 종종 동그랗고 하얀 내 얼굴이 이모와 닳았다고 하셨다.
- ③ ㉢: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 ④ ㉣: 만약 네가 나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 ⑤ ㉤: 우리가 정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55. <보기>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는 결과로 적절한 것은? (고2 2016년 3월 학평 15번)

<보 기>

(가) 지원이의 꿈은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 지원이의 꿈은 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다.

(나)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다)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문장의 중의성	주어와 서술어 간의 불호응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①	(가)	(나)	(다)
②	(나)	(가)	(다)
③	(나)	(다)	(가)
④	(다)	(가)	(나)
⑤	(다)	(나)	(가)

56. <보기>의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을 수정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5년 9월 학평 12번)

<보 기>

	원래의 문장	검토 내용
㉠	약은 약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조사를 잘못 사용함.
㉡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어 왔다.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음.
㉢	그의 장점은 모든 일에 성실하다.	
㉣	철수는 사과와 배 두 개를 먹었다.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됨.
㉤	기타는 아름다운 은영이의 목소리를 좋아한다.	

- ① ㉠: 약은 약사께 상의하십시오.
- ② ㉡: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
- ③ ㉢: 그의 장점은 모든 일에 성실하다는 것이다.
- ④ ㉣: 철수는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를 먹었다.
- ⑤ ㉤: 기타는 은영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좋아한다.

57. ㉠~㉥ 중 수정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4년 9월 학평 B형 13번)

검토 사항	원래 문장	수정한 문장
시제 표현이 적절한가?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간다.	㉠
피동 표현의 사용은 적절한가?	그가 다쳤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
조사의 쓰임이 적절한가?	언니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 적절한가?	나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
의미가 중복되는 어휘가 있는가?	그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을 돌이켜 회상했다.	㉤

- ① ㉠: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
- ② ㉡: 그가 다쳤다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 ③ ㉢: 언니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 ④ ㉣: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 ⑤ ㉤: 그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58. 수업 시간에 문장을 다듬는 연습을 하였다. 고친 이 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5년 3월 학평 13 번)

고쳐야 할 문장	고친 문장	
가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
기차가 이른 속도로 달렸다.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렸다.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다.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이 많다.	㉣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

- ① ㉠: 어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 ②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 ③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서
- ④ ㉣: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어서
- ⑤ ㉤: 문장 사이의 접속 표현이 어색해서

59.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5년 11월 학평 15번)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다. →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	그의 말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다. → 그의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	그는 공연장에서 춤과 노래를 불렀다. → 그는 공연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	연서는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말했다. → 연서는 “내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말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 ① ㉠: 서술어 ‘주셨다’가 요구하는 목적어가 없다.
- ② ㉡: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③ ㉢: 목적어의 하나인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 ④ ㉣: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⑤ ㉤: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60.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 습 자 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6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보 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지요?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 ㉠ [··을 ...으로]
 ②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 1 [··을]
 ③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 ㉠ [··에]
 ①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 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물다 ㉡ 1 [··을]
 ②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 ㉠ [··을]
 ①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뒷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62.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26학
년도 수능 39번)**

<보 기>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
-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 ① ㉠의 '시작되자'와 '낮췄다'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 ② ㉠의 '낮췄다'와 ㉡의 '빼앗겼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③ ㉠의 '시작되자'와 ㉡의 '말리는'은 모두 파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④ ㉢의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 ⑤ ㉢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6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오늘은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시 문장에서 다음의 ㉠~㉣이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 ㉠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파동사
- ㉡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
-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제시 문장	수행 결과
①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②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왔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친구가 마음이 어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④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64.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B)**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65.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B)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u>대하지 않는다</u> .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u>지내기도 한다</u> .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u>되지는 못했다</u> .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u>존경했다</u>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u>유학자이다</u> .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66.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A/B)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 <u>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u> "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 <u>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u> "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 <u>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u> "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 <u>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u> "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 <u>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u> "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67.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B)

〈보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러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러던 노래이다.

〈자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68.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B)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 | (가) | (나)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69.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A/B)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70. <보기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AB)

<보기 1>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보기 2>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7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기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38번)

<보 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 ①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 ②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③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 ④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⑤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72.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25학년도 수능 39번)

<보 기>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예 보는구나 → 본다고).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자 료>

- 그는 그제 우리에게 ㉠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 ① ㉠은 '모레'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② ㉠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③ ㉡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④ ㉡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⑤ ㉢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